朝鮮日報
夕刊
二十八日(水)
本紙朝夕刊十二面
◆本社定期刊行物◆
少年朝鮮日報(日曜附錄)
朝光(月刊一回發行)
女性(同上)
少年(同上)

我軍飛行機○機 北平城外를空爆

高木部隊行宮占領、雙方死傷多數

【天津二十八日發同盟】 支那駐屯軍司令部 二十八日午前七時二十分發表 ‖ 西苑에 對하여서는 坂口部隊가 二十八日 午前五時三十分頃 南苑에 對하여서는 同午前六時二十分頃 爆擊을 加하야 敵에게 多大한 損害를주엇다

【天津二十八日同盟至急報】 夜來에비도그치고 午前五時四十分我飛行隊○機는北平南西方 城外相當한 距離로보이는 方面에 向하야 空爆을加하엿다 轟音이 天地를 흔들만하고 繼續同五十分 ○機 同六時 ○機는 훌륭한編隊로서 나라와서 南苑으로생각되는 方向을爆擊하엿다

【天津二十八日發同盟至急報】 支那駐屯軍午前五時發表

一、川岸部隊의高木部隊는二十七日午後三時三十分부터行宮(南苑南方五粁)의敵을攻擊하야砲兵의適切한協力下에頑强한敵의抵抗을擊砲하야午後七時十五分이를占領하고繼續하야內部의蕩掃을實施하얏다 敵의損害는多大하야無慮五百에達하고我軍의損害도 또한相當히큰模樣이다

二、二十八日午前三時我軍用電線은 支那軍때문에 全部切斷하얏다

我軍遂行動開始

日支兩軍激戰展開 我軍二十九軍主力을空爆

【北平二十八日發同盟至急報】二十八日午前六時지나 南苑方面에서 猛烈한 砲聲이들리는것으로보아 日支兩軍間에 激戰이 展開되얏하다

【北平二十八日發至急報同盟】二十八日朝來 我空軍의 爆擊은北平城을 멀리 떠난南苑及 西苑에잇는 第三十八師及 第三十七師의 第二十九軍主力을 目標로 行하는模樣이다

【北平二十八日發同盟】北苑에는 阮元武(獨立二十九旅)의 一個旅가 駐屯하는데 我空軍은 二十八日午前七時二十五分 그上空을 旋回하야 偵察中이다 그리고 南苑方面의 爆擊은 午前七時二十分에 大體로終了되엿다

孔陳兩部長急遽歸國

【上海二十八日發同盟】財政部長孔祥熙와함께 英國皇帝戴冠式參列때문에 渡英中이엿든 海軍部長陳紹寬은 時局緊迫에鑑하야 急遽歸國 二十七日午前十時四十分 로얄에어-워-의 定期航空機로서 香港에到着 本日飛行機로南京에 到着할터이다

中央北上軍 長辛店에到達

【上海廿八日發同盟】情報에 依하면 保定에서 待機하고잇든 中央軍河北進出部隊는 昨日來 北平에 向하야 前進을 開始하야 先頭部隊는 이미 長辛店에 達하고 主力部隊의 集結終了를 기다려 北平門外의 我軍에 向하야 攻擊態勢를 取하려하고잇다한다

車上의怪支那人 我步哨兵을狙擊

【北平廿七日發同盟】廿七日午後一時頃 我兵營건너편 道路上을 北에서南으로 通行하든 人力車上에서 我步哨에向하야 拳銃을 [illegible]한 怪支那人이잇섯다 多幸히 彈丸은빗나가 被害는업섯스나 北平市內에 便衣隊○○ 抗日急進分子가 侵入하엿다는 情報가잇는此際 嚴重히警戒中이다

北支事變畵報

上은 保定에 撤退키爲하야 平漢線驛에서 列車를기다리는 二十九軍의兵士들 下는 同軍의武器彈藥積載

蔣、宋에게武力抗爭命令

【南京二十八日發同盟】蔣介石은 二十七日正午 宋哲元에게『日本의 攻擊에對하야 끗까지 武力으로써 抗爭하야 斷然防地를 放棄하지말라』고 電命하엿다

駐屯軍安民布告

【天津廿八日發同盟】支那駐屯軍은二十八日午前五時頃에 左와如한 安民布告를 平津兩市及各重要地에 貼布하고 同六時頃飛行機로 各方面에 配布하엿다

▲大日本軍布告第一號

大日本軍司令官香月은 玆에鄭重히 中華各民界에 諭告함

大日本의 使命은 東亞和平과 中華民衆의 福祉增進을 確立하고 兩國親愛에依한 協享慶福의 臨願을 實現하려하는外에 他意가업다 그런데 中國은 日本軍에 對하야 傲慢非禮不義하게 抗日侮日을 行한다 日本軍司令官은 東亞大局과 河北의 安寧을爲하야 不擴大方針을 堅持하고 隱忍自重하엿스나 支那軍은 끗내깨다름을모르고 挑戰하여온다 이리하야 支那軍의 行動은 大日本帝國의 威嚴을 侮辱할뿐아니라 東亞의 和平을 危殆에陷하게하고 萬劫不復의 慘禍를 남기게하는것이다 我軍은 上으로 天心에副하고 下로民心에 應하야 玆에 如斯한 不仁不義頑迷兇暴한 무리에對하야 膺懲을 加하기로決定하엿다 그러나 我에對하야 不敵對하는 一般民衆은 我의 親友로 本軍은 醇良한 民衆에對하야 何等侵犯치안흘뿐아니라 반드시 法을設하야 保障하고 永久히 共福利를 圖할터이다 各界民衆은 冷靜을 持하야 本軍을 信賴理解하고 擾亂을 이르키지말고 各人生業에 勤勉하야 樂土實現을 待望하라 萬若乘機하야 治安을 妨害하고 兇暴不逞의 徒를援助하면 嚴重處罰處分에 附할터이다

玆에布告함

昭和十二年七月二十八日

日本軍司令官 香月 淸司

宋哲元을支援

中央政治緊急會議決定

【上海二十七日發同盟】二十七日午後에 開催한 中央政治緊急會議의 結果左와如히 方針을 決定하엿다

一、一旦有事時에는 國民政府는 全力을다하야 宋哲元을 支持함

一、이에河北에入한 中央軍은이를 宋哲元의 指揮下에置한다

(寫眞은 宋哲元)

宋哲元、二十七日夜 對日宣戰을通電!

抗日守土의決意를鞏固히하고 全國에向해協力要求

【北平二十八日發同盟】宋哲元은 二十七日夜 敢然抗日守土의 決意를 鞏固히하고 全國에 協力을 求하야 對日宣戰通電을 發하엿다

一切責任은日本에

國府、逆襲的聲明發表

【南京二十八日發同盟】國民政府外交部는二十七日午後十時半重大聲明을發하얏는데廊坊事件及二十六日의通牒等에 觸하야『支那側의 平和的努力에도 不拘코 日本軍은 事態의 惡化를 圖한다 今後의 事態에對한 責任은 日本側에잇다』고 逆襲的態度를表示하엿다 【以上號外再錄】

獨自的行動通告!

松井特務機關長으로부터

【天津二十八日發同盟至急報】支那駐屯軍二十八日 午前零時發表‖ 支那駐屯軍司令官 香月中將代理 北平松井特務機關長은 今二十八日午前零時第二十九軍長宋哲元에 對하야 『第二十九軍의協定不履行의不誠意와累次의挑戰的行爲는벌서 我軍으로는 隱忍하기어려운바이며 就中廣安門事件에잇서서의 支那軍의 欺瞞行爲는 我軍을侮辱한것이므로斷然容許할수업다 軍은 玆에不得已獨自的行動을取치안흘수업게되엿다』고通告하고 또 北平城內에 支那軍이駐在하고잇는것은 城內에 混亂을惹起하며 戰禍를波及할念慮가잇스므로 市民及在留外人을爲하야 北平城內로부터 支那軍隊全部를 即時 撤退할것을勸告하엿다

北平各國大使館 自國民撤退命令

爲先交民巷에收容開始

【北平廿八日發同盟】支那兵의暴慢性은 언제如何한 不祥事件을 惹起할는지도몰라 支那側의外人保護聲明等은 全然信用할수업는 情勢가되엿슴으로 各國大使館은 居留民에 撤退命令을發하는同時에 各國旗를揭揚한 大公使館의 自動車는 各自國民으로하여곰交民巷에收容을開始하엿다

四個國에서 居留民保護共同要求

【北平廿八日發同盟】米國大使館書記官솜스베리氏는 二十八日午前九時我大使館에 森島參事官을訪問하고 英、米、佛、伊四個國의 共同要求인

一、今回事變에 對하야 各國居留民의 生命財産을 保護키爲하야 公使館區域을 戰爭區域으로하지말것

一、該四個國軍隊는 外壁을 防禦하는데 諒解하기바란다

하는二項目을 提出한바 我方으로는 今回事變에 對하야 說明하고 今後서로 提携하야 居留民保護에 努力하기로되엿다

酒井部隊 三十七師攻擊中

【天津二十八日發同盟】支那駐屯軍司令部午前九時三十分發表‖酒井部隊는 北平의 北方二十粁의沙河鎭에잇는 第三十七師馮治安部隊를 今曉來攻擊하야 目下激戰中이다

【天津廿八日發同盟】支那駐屯軍司令部發表‖ 川岸部隊及河邊部隊는 今朝南苑附近에잇는 支那軍을 攻擊中으로 目下激戰中이다

主力으로써 敵의退路를 遮斷하고 目下追擊中이다

日本要求拒絶 宋哲元國府에報告

【上海廿八日發同盟】宋哲元은二十七日國民政府當局에對하야 「余는 日本側의 要求를 全面的으로 拒絶하기로 決定하고 二十七日 天津北平兩市內에 二十九軍은 日本側의 要求를斷乎拒絶하엿다는 布告를 貼出하엿다」는旨를報告하엿다

宋哲元辭意表明

【南京十二七日發同盟】宋哲元은二十七日 南京政府에對하야 現下의 難局에際하야 自己는 適任者가못된다는 理由로 冀察政務委員長 第二十九軍長其他一切의 本兼職을 辭任할旨를 申請하엿다

戰時體制에入할 重要訓示!

南總督、緊急局長會議招集코

危急을告하는 北支情勢는 마침내 爆發線上에 達하야 銃後民衆奮起의 機會도 熟成하여왓스므로 南總督은 昨二十七日夜八時에 倭城臺總督官邸에 緊急局長會議를 招集하고 爲先南總督은 「北支事變은 마침내 本格的으로 展開의 時期에 達하야 準戰時體制는 戰時體制에 들어갓다 此際總督府職員은 一層決意를굿게하야 其本務에當하라」고 奮起를促하고 다시 過般의 知事會議에서 闡明한朝鮮內治安確保의 三原則徹底와 內鮮一體 官民一致의 實을 實現하도록 强調하고 「銃後에잇는者는 自進從軍하야 奉公할려는 氣分은 올흔일이나 各自에게는 各其의 任務가잇스며 銃後에잇는者는 一意專心 其本分에 精勵하라」고 重要訓示를 附與하엿다 이에 基하야 總督府에서는 同日深更 곳 各道知事에게 右趣旨를 傳達하는 電報를 發하는 同時에 地方官民의 奮起를 望하며 全半島가들어 戰時體制의 用意를하게되엿다

南苑占據코追擊 川岸河邊兩部隊激戰中

【天津廿八日發同盟】支那駐屯軍司令部二十八日午前十一時發表 南苑附近의敵은 漸次北方方面으로 退却하야 我軍은 一部로써 南苑을 占據하는同時에

首相言明의 重大決意內容

【東京電話同盟】近衛首相은 廿八日 衆議院本會議에서 特히 發言을 求하야 今回北支事變에關하야 左와如한 重大決意를 言明하엿다

〃衆議院演說〃

近衛首相 今回의事變에對하야 나의所見은 昨日 本議場에서 述하엿거니와 今回의事變이 勃發하게되자 그當時 中外에도 政府로서 聲明한바와가티 政府는 끗까지 不擴大方針을 堅持하고 全面的戰爭이됨을 極力避하기로하엿다 今日이라할지라도 아직全然平和의 希望을 버린것은아니다 그러나其後支那側의 [illegible] 하다 이는實로不得已한일로此際政府로서 重大한決意를行하는때가 온줄로생각한다 여러분들도 아무쪼록이 提出한 [illegible]에對하야 協贊하여주기를切望하는바이다

杉山陸相參內 北支事變委曲奏上

【東京電話同盟】杉山陸相은 二十八日午前八時 宮中에參內 天皇陛下께 拜謁仰付 北支情勢에關하야 委曲奏上 陳謹 御下問에 奉答하고 退下하엿다

南苑三七師에 進擊開始 相當한激戰展開

【北平廿八日發同盟】二十八日黎明으로써 開始된 我空軍의 爆擊은 凄然하야 南苑及西苑方面의支那軍에相當히 큰損害를與한 모양으로 다시飛行機는 北平上空에서市街를 旋回하면서 그監視에努力하고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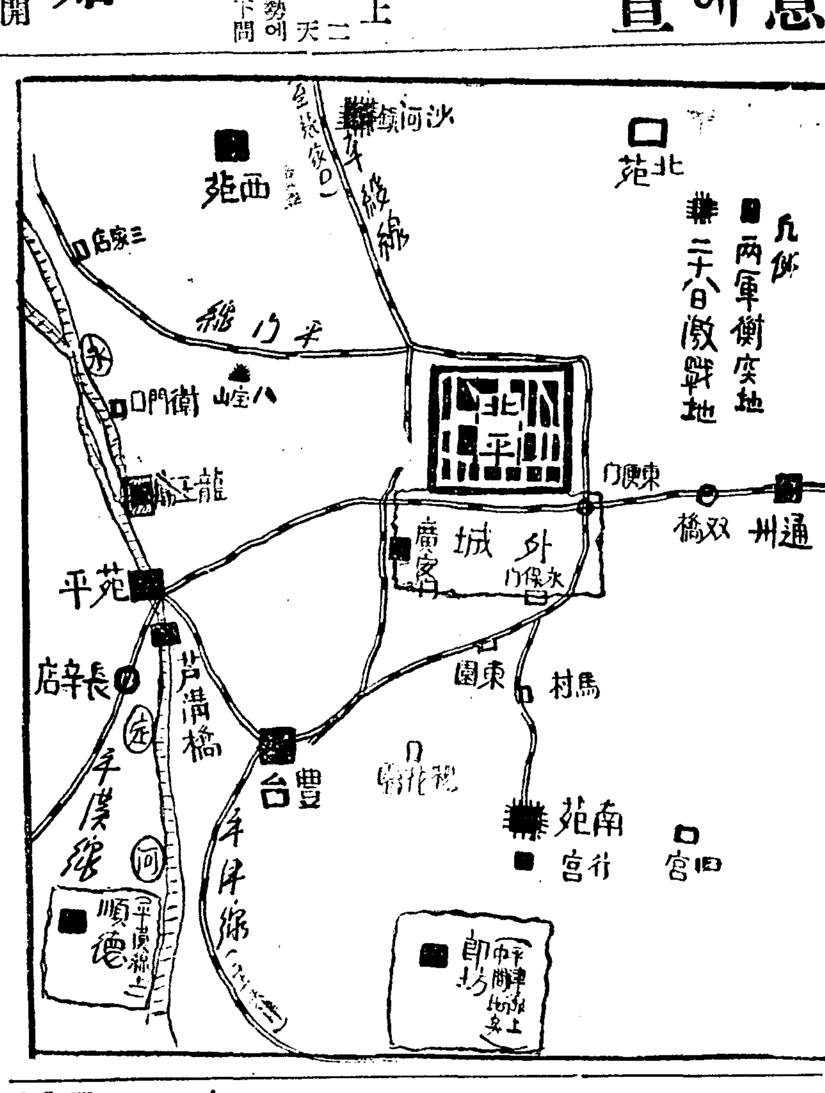
午前六時半頃 大使館區域北側에面한 東長安街의 北平호텔屋上에서 西南方의 空中을眺望한즉 멀리 南方南苑一帶에 砲煙이 頻繁히소사오르고 彼我의砲聲이 殷殷이니러나고잇다 南苑의第三十七師에對한 我軍의進擊이 開始된것으로 相當한激戰이 展開되고잇는 모양이다

國府最高幹部會議

强硬論으로傾倒

時局의最後段階到達을覺悟

【南京二十七日發同盟】中央執監國府軍事各委員을 網羅한 中央最高幹部의 緊急非常會議는 二十七日午後二時부터 蔣介石司會下에開催、席上에서 陳立夫로부터 廊坊事件에關한 宋哲元의經過報告及停戰交涉報告의 電報를 朗讀한後 對策을 協議하얏는데 各委員의 意見은 廊坊事件으로 時局은 最後의段階에 到達하야 이以上隱忍을 不許함으로 모름직이 國家의 全力을 擧하야抗戰하라 外交를避하고 平和를求함과 如한迷夢을 貪하지말라는 强硬論이開陳되여 會議는約三時間에亘하야 同五時에 散會하얏다 只今까지 저윽히 緩和되엿든 南京의空氣는 二十七日午後부터 緊張되기始作하엿다



八面鋒

◇ 重役은 二人이줄고 重役報酬는 四、八倍로늘고。

◇ 朝鮮銀行에서 行員五名을 다려오는것이 東一銀行의 改革後의 첫事業。

◇ 三分配當이라면 株主에게가는돈이 四萬六百二十五圓、重役報酬一萬二千圓과 比率이어떠할고。

◇ 重役을爲하야 存在하는것이 今日株式會社의通例일지모르나 株主도 若干은생각하소。

◇ 不正事件連發、損失補充이問題되는銀行으로 改革總會에서 支出項目부터 느림은不可解。

號外四次發行

本社는 二十八日附 北支事變에關하야 四次號外를 發行하야 市內及附近讀者에게 配達하얏습니다

準戰體制를離脫 戰時體制로飛躍

二十七日南總督官邸에서 緊急局長會議召集

南總督重大訓示

오래동안계속하야오든 준전시대(準戰時代)는 작이십칠일부터마침내 전쟁체제로 돌변하고마럿다 남총독(南總督)은 이십칠일오후 팔시부터 왜성대(倭城臺)관저에 긴급국장회의를 개최하고극도로 험악한 비상시국의 각오에대하야 일장훈시가 잇섯다 그내용인즉 북지정세는 마침내 본격적전쟁체재로변함에따라 조선내의 시국도평상준전시대를 떠나서 전쟁시체제로 변하게되엇슴으로 이때 종래기정방침의 철저를 기하야 일반민심의 동요가업도록 할것은물론이어니와 이기회에 내선일체를 완전히실현하도록 극진히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일선에 나아가서활동하는것만이 반드시 국가봉공이아니다 각자소관사무와직업에안정하야 총후봉공의철저를기하는것이또한 비상시국에 대처하는중대한 국가봉공이다 북지사변은 거의본격적 전쟁으로 상당히 오래계속할 모양인즉 일반은 이것을 철저히각오하야 준전시대에서 전쟁체제로 돌변한것을 어석하여야할것이다

여상과가티 시국관계에 대하야 긴급한 국장회의가 잇자 총독부내의 공기는 극도로 긴장하야비상시국을그대로 여실히 표현하고잇다

이와가티 총독관저에서 개최된 긴급국장회의의 결과에하야 남총독(南總督)은 각도지사에게 〃비상시국본격적돌변에 대하야 철저한각오를 환기〃하라는동 대통첩을발하얏는데 이와가튼통첩은 각지도지사로하야금 놀라고도 나풀이잇스리라한다

白堊殿內大緊張

官吏大部分은實際로半休廢止

시국이 밀퓌로변하자 총독부부내의 공기는 일종긴장한중에 극도로 분망하야 가위안비막개의상태에빠저잇다 그리하야 하기반휴(夏期半休)도 명색뿐으로 전화교환수를 필두로『다이피스트』등이 오후네시까지 잇서서 련락을취하고잇는것은 물론이오 각과중요직원들은 모두오후네시까지 나머잇서 집무하고잇다。특히 문서과(文書課)에는 이십팔일부터 전화교환수『다이피스트』기타시국관계직원이 오후칠시까지 정보사무를보기로되엇다 그리고 요전에 설치된 정보위원회사무가 폭주하야 종래의문서과직원만으로는 도저히 처리하야나아갈수가 업슴으로 이십구일부터 정무총감응접실에 비상시국응원본부를 설치하고 정판문서과장(井坂文書課長)목산심의실사무관(牧山審議室事務官)당본체신국 부사무관(堂本遞信局副事務官)산구농림국 리사관(山口農林局理事官) 전중지방과속(田中地方課屬)등이 주요직원으로 밤까지 정보사무를 보기로되엇다

情報委員會를擴充

종래 일정 하지안튼 정보위원회는 이번부터 매주 월요일과목요일 오후일시에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되엇스며 시국에관련되는 미담가화(美談佳話)를수집하야 총독부관보부록으로 주보(週報)를 발행하기로되엇다

情報委員關係로 事務官二名增員

정보위원회기타 중대시국에따한사무로 총독부문서과에는 림시응원본부를 신설하는등 여러가지로 비상활동중인데 그와가티 응급수단을써도 도저히사무의 원활민속을 기할수업슴으로 팔월초순경부터 사무관이명을증원하기로되엇다

금으로 내노앗다

農村青年이 從軍을自願

북지의 정세가 날로 긴박하여지는이때 두명의 조선농촌청년이 몸소 전지에 내보내달라고 경찰에 탄원하여온 일이잇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고양군 신도면 구파발리(高陽郡神道面舊把撥里) 륙십삼번지 김춘태

淸溪川에서洗滌하는 惡菜蔬商嚴罰

東大門署서四名檢擧

칠십만부민의 여름철 식탁에 제일만히오르는 채소는 종래흔이 청계천(淸溪川)가튼 더러운물에 씻슨것이판매되여 이것이 전염병의 매개물(媒介物)이되며 온 악페를일소할시설로 경성부에서는 금년여름부터 왕십리(往十里)와 부외독섬에다 채소세척장(野菜洗滌場)을 특설하엿스며 이곳에서 씻슨 채소에대하야서는 증명서까지 발행하야 엄중단속을하고 잇슴에도 불구하고 위반자가 생겨 부민의 주의를 환기하는 사건이 동대문서관내에 발생하엿다

부내 행당정(杏堂町)삼백십번지 김홍길(金弘吉)(三二)동정이백어번지 정일룡(鄭一龍)(三七)하왕십리정(下往十里町)구백칠십이번지 안갑성(安甲成)(三三)동정칠백칠십일번지 김건순(金建順)(二六)등네명은 공모하고 이십륙일밤 어두움을 타서청계천하류 더러운물에서 만흔채소를 씻고잇다가 동대문서원에게 발견되여엄으로 동서에서는 호열자경계하기위하야 엄중한처벌을 하엿다 시내각서에서도 부민의보건 상

에 자기들을 [illegible] 부내여서 무슨일에나 황군을 가게하여 달라고 간청하여왓다 그서에서는 때를기다리라고 잘일러돌려 보내엇다고한다

昭和生命疑雲一掃 南重役不起訴決定

동경시 경교구(東京市京橋區)경교 이정목 소화생명 보험상호회사(昭和生命保險相互會社)취체역 재무부장 하래홍차랑(賀來興次郎)씨와 상임감사역 대총건치(大塚謙治)씨에 대한 피의사건은 그후동경지방재판소심천(深川) 검사간여로 불구속인채심리를 계속하든바 이고소는 전연사실무근으로 량씨의 개인적 부정사실이업는것은 물론당회사의 부정사실도 업슴이 판명되여 드디여 불기소로되엇다

저지안케해독을끼치는 이런부정상인에게는 단호한처치를 하기로되여잇슴으로 특별한주의가필요하다

말을가지고詐欺

부내신당정(新堂町)백칠번지의구순호 김동익(金東益)(四〇)과 양주군구리면수택리(楊州郡九里面水澤里)김은산(金銀山)(四三)은 공모하야 지난하로날 인천부도산정(仁川桃山町)김재봉(金在鳳)씨의말한필을 어백오십원에사가지고 계약금사십원을 치루고잔액을다치룬다는 삼오일에 상경하야 상왕십리정(上往十里町)오백이십번지 림병세(林炳世)에게이백십원에파러 돈을분배하야먹고 어래피하여 다니다가 이십일일 드디여 동대문서원에게 발각체포되엇다

不連續線이남기고간 비답잔흔장마비

오늘부터날세는든다

【仁川】 구십사오도를 초과하얏든 폭서가 계속하드니 비는작일부터 내리기시작하야 더위에 시달린 인간들에게 다소의 량미(凉味)를 맛보여주고잇다 이제 작금의 천후를 인천관측소에 무건대 이는 수일전에 통과한 태풍으로 인하야 불연속선(不連續線)이 조선을 통과한 관계로 비가 나리엿다는데 여십팔일오전륙시 현재 각지우량은

▲中江鎭 一미리 ▲仁川 七미리 ▲京城 三四미리 ▲全州 九미리 ▲木浦 一미리 ▲雄基 一六미리 ▲江陵 三九미리 ▲大邱 一四미리로서 현재의기압배치는『오호츠크』해로 동해양상에 저기압이 잇고 황하(黃河)로부터 황해(黃海)부부와 북조선에 불연속선이걸처잇기때문에 다소 비를나리엿고 남부조선은 개이엿스나 금일오후부터는 쾌청하리라한다

男便과싸우고 中老婆自殺

이십륙일 오후 아홉시사십분경 부내한강인도교 중앙부 전차궤도에서 전차이백이십팔호를 운전수 김덕진(金德鎭)(三五)이가 운전하야 황금정방향으로 달리든중 녀자한명이 홀연전차에서 뛰여나리어 길바닥에 머리를부드치고 혼도되엿다 곳철도병원으로옴기여 응급수당을하엿스나 그는벌서 두개골이부서저서 령시삼십오분에 필경 사망하엿다 룡산서에서는 현장을 검시한결과 그는 부내본동정(本洞町)일백이십번지 김춘근(金春根)의처 김씨(金氏)(四九)로서 남편과 싸운끗헤 부내왕십리(往十里)에거주하는 자기딸집으로간다고 집을나와 극도로흥분한끗헤 자살을 각오하고 그가티전차에서 뛰여내려자살한것이라한다

道路橫斷될垈地 契約金返還請求側勝訴

道路計畫에든情을알고賣渡함은不法

市內土地賣買에重大衝動

지난오월오일 부내청진정(淸進町)일백팔번지의 십호 신현모(申鉉謨)씨는 부내옥인정(玉仁町)삼구번지 리항구(李恒九)씨를 상대로 매매계약이 성립되기전에 시가지계획령(市街地計畫令)에따라 도로를내기로 예정된터를 사실을숨기고 파럿다하야게약을해제하는동시에 계약금륙천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제기하야 그러지안하여도 시가지계획령이 발포되이래 홍정이 적어지든 경성시내토지가옥매매행위에대하야 더욱더욱 경계를만히하게하야 일반의주목을 끌고잇든바 이십륙일 암도(岩島)재판장은 원고의주장이올타하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바든 륙천원을 소장이송달된 오월십구일부터 리식을부처서 반환하라는판결을내렷다 사건의내용은 원고는 지난일월이십이일 피고의소유궁정정(宮井町)삼번지 터일천오십삼평을 오만오천 팔백구원에사되 계약금으로 륙천원을내고 대금은전부 이월이십팔일에 지불하기로 매매계약을하엿다형편에따라 쌍방이협의한결과 대금지불기일을 삼월칠일까지연기하엿는데원고가삼월사일에 경성부청에가서 그터를조사해본즉의외에도 그터한복판으로 도로가 돌리게되야 사백팔평이나 도로로들어가게되엿다 그러에 집을지으려고 원고는 사려한것인데 길이 한복판으로 나면도저히집을지으려는 목적을달할수도 업슬뿐만아니라 피고는 길이나는줄 알면서 그것을 말하지안흔것은 하비(瑕疵)를 숨긴것이라하야곳 피고에게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하는동시에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얏든바 피고는 이에응하지안흐므로소송을 제기한다는것이 원고의주장인데 대하야 피고측은시내에서 터를천여평식사려는사람이그곳에 길이롤하다는것을 조사안하엿슬리가업고그가대금지불기일에 대금을지불치안하엿스니 계약금을반환할필요가업다는것인데 재판장은피고가 도로가뚤린다는말을 하지안흔것은 하비를숨긴것이라고 인정할것으로 원고가 지불기일전에계약해제의사를 표시하엿슴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반환하라고 전기와가티 원고에게 승소판결을내렷다 이것은 일심판결로서 피고측은 공소할것이나 장차 이문제가 어떠케해결될지 자못 주목을끈다

不遇妓生飲毒

이십칠일오전두시경 부내관훈정(寬勳町) 사십륙번지 김명순(金明順)(二二)이라는 묘령미인이 칼모틴오십개를마시고 자살을도모한것을집사람이 발견하고 부근견지의원(堅志醫院)에 입원치료중으로 생명만은 구할듯하다고한다 그는수년전부터 조선권번(朝鮮券番)에기적을두엇스나 수입이업서 지난십이월에는 할수업시폐업하고 온양온천(溫陽溫泉)등지로 전전하다못해 얼마전에다시 전기주소로 도라와 실망과 빈궁의그날을 보내오든 것이라고한다

黃牛와衝突 汽動車破損

이십칠일오전열한시에 평원선 순천(順川)역을떠나 양덕으로가든 기동차가 인평(仁平)、지수(智水)사이를 진행하든중 선로부근에서 풀을뜻더먹고잇든 소한머리가 그기동차 아페뛰여드러 충돌되여 기동차일부가 파손되여서 아프로 더진행할수업시되엿슴으로양덕으로부터 구원기관차를 보내엇다하

魔의池虎岩池에 또兩人을삼켜

【忠州】 충주호암제(虎岩堤)당무자들의 과실로수문(水門)의고장을내여 한명의잠수부(潛水夫)를 생켜서 십여일을두고 일대소동을이르킨사실은 아직도 우리들머리에 새롭은 오늘!지난이십일과 이십이일에 또다시 두사람의생명을 생켯다는바 그의사자들의 주소씨명은 아즉불명이라하며 사체는 바로차저서가매장을 하엿다한다

子侄에煩累를念慮 病母·寢床에서縊死

二十七日深夜市內醫專病院病室에서

死線을無視한 母性愛

둘도업서 사랑하는 아들딸에게 괴로움을 끼치느니보다 차라리 죽엄의길을 취함이나켓다고생각한끄테결국그길을취한거룩한모성애에불타는 로파가잇다 이십칠일밤김피 부내의전병원(醫專病院)외과병실에는 수열전부터다리수술을 하고입원치료 중이든 부내주교정(舟橋町)사는 표씨(表氏)(六一)라는 로파가 병상에누은채 빼드에목을 매여죽어잇는것을 순회하든 간호부가 발견하고 일대소동을이르켯다 로파는수술의 결과가조치 못하야다시수술을하지안흐면 안되게되엿고 이와가티 오래병으로 아들과딸을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곤난케하는것은 그들의전도를위하야서도 참지못할일이라고하야 각오의자살을 한듯하다고하며그의아들 김모(金某)(假名)는 현재시내모중등학교에 교원으로 잇다고한다

故安弼勳氏四十九齋

조고계에 긔력사를 남기고삼십사세를 일기로 이세상을떠난 고안필훈(安弼勳)씨의 사십구재(四十九齋)를 오는삼십일오후네시부터 동대문밧 보문암(普文庵)·탑골승방에서 거행한다는데 씨의 생전지구의 다수참석이잇기를 바란다고한다

愛國機開城號

開城府尹이獻納手續

개성부윤(開城府尹)권중식(權重植)씨는 이십칠일오후한시에조선군사령부를 차저가서 구납참모장(久納參謀長)을 면회하야돈사만원을 내여노코 애국기개성호(愛國機開城號)한대의 헌납수속을 하엿다 이돈은 개성부내에사는 유력자들로부터 수합한것으로그성명은 다음과갓다한다

▲孫洪駿 金正浩各萬圓 ▲韓明錫五千圓 ▲李根泰 孔聖初 朴永韶 張學淳 馬玄圭 李允明 林漢瑨 朴東珪 崔仁鏞 孔聖學 趙經淵 金基永 林鳳鎬 馬壽淵 朴尙悳 各一千圓

國防獻金遝至

金季洙氏 二萬圓

부내성북정(城北町)사는재산가 김연수(金季洙)씨는 이십팔일에 경성부윤을차저가서 돈이만원을 내여노코 일만오천원은 국방비(國防費)로 오천원은 군인위문자금으로 쓰게하여달라고 맛기고갓다한다 서 황군의 분투에는 항상경의를표하고잇서 그전에도 헌금을 여러번하엿섯다

이십팔일 룡산서 보안계에드러온 국방의연금 헌납자는아래와갓다

부내미생정(彌生町)삼정목후(三幸樓) 창기일동이 십원을 헌납하엿고 룡산철공장에서백원을 헌납하엿고 부내공덕정(孔德町)삼십구번지의 사십여호에사는신석순(申錫順)이가십원을헌납하엿고 부내원정(元町)일정목칠십팔번지 등택안부(藤澤安夫)가이십원십전을 헌납하엿다

▲부내서린정(瑞麟町)경성조선인고물상조합(古物商組合)조합원일동은 백원을거출하야 이십팔일 종로서를 방문하고 국방헌

白系露人도獻金

이십칠일 오후세시경에 경성헌병대를 방문한 시내 정동정(貞洞町) 이십이번지 백계로서아인『베로고로-브』씨외 십삼명은 오십팔원을 추렴하야 국방헌금을하엿다 이『베로고로-브』씨는 제정로서아의 장교로

便所서分娩된 不義兒는壓殺屍?

龍山署서姙婦를取調

이십칠일새벽에 본처잇는남자와 본부잇는여자가 비밀히정을통하야 변소에서 불의의씨를나케되자곳죽어버린 영아(嬰兒)의 엽기적사실이 룡산서관내에 잇다

부내 대도정(大島町)이십삼번지오데집에서 그집주인 진전금일(眞田金一)(三三)의정부인 길하(吉賀)『하즈미』(二〇)는 삼년전부터진전(眞田)방에와서 여급으로 지나는중진전과 서로정을통하고 지나다가『하즈미』가작년구월경에지금 안동성통화현(安東省通化縣) 흥화강조(興和强組)출장소에근무하는 우전천여일(宇田川與一)(二二)과 결혼하게되여 금년삼월까지 우전천과가티 살게되엇스나우전천이가 혼자만주로 가게되자 정을떼일수업는 그들은여전히정을통하고 지나다가 그전에임신한것이 만삭이되여 불의의씨를 변소에가서 나케되엿다는데 곳부내원정(元町)이정목팔십이번지 고교(高橋)산파를 데려엿나 영살되엿는지 질식식혀죽엿는지 똥통속에 드러잇는영아를끄내보앗슬때는절명되여 잇섯다이를 의심한산파는곳 룡산서에 알렷슴으로 룡산서에서는 전기 진전(眞田)을 인치하야엄중취조하는일방 산부(産婦)『하즈미』는 성대병원에 입원중이므로 그곳에서 취조를 하며 영아는 도경찰부의가 해부중이라는데 전후사정으로보아 타살의 혐의가 농후하다하며 재차 시체해부를 하기로하엿다

平壤·合併問題

【平壤】 전기통제로 서선(西鮮)합동전기회사와 부전기과에서 그동안 출자액과 현재재산가타를 조사중이든바 그조사도 끗낫슴으로 월말또는 팔월초순에드러 전기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전평가에 대하야 대로의가잇슬터이한다

運動競技

留學生 全平壤 拳鬪對抗戰

卅一日밤、平壤新公會堂

【平壤】 平壤拳武會拳鬪部主催와 本社平壤支局、關西體育會後援으로 오는卅一日午後八時부터 新公會堂特設『링』에서열리는 平壤拳鬪有史以來 初有의豪華戰인 東京留學生軍對 全平壤軍의歡迎拳鬪戰은 벌서부터 滿都『펜』의人氣는 絶頂에達하여 空前의熱血戰이展開될 試合날만 渴望하고잇다

東京留學生軍의 陣容은 임의全京城軍과 對戰時 알리워저 잘알엇으로 잇거니와 全平壤軍은平壤이나흔 蘇勝兒 郭龍河君(떼더ー)을 비롯하야 朴鉛植(웰터ー) 姜泰德(라이트) 金熙祐(밴탐) 崔永植(푸라이)等 五名이出戰케되어 방금拳武會〃링〃에서 猛練習을 거듭하고잇다

그리고 임이『멤버ー』가 交換되어 對陣도決定되엇는데 果然東京軍이 京城에서의 慣敗를 平壤에서 雪辱할는지?或은平壤軍에 拳鬪平壤의面目을 세울는지?매우 注目되는바 [illegible] 黃[illegible]秀氏가 專任케되엿다

그러데 對陣은 다음과갓다

	【東京】	【平壤】
푸라이	洪應圭(立敎)	崔永植
밴탐	朴春緖(日大)	金熙祐
떼더ー	李相駿(日大)	郭龍河
라이트	金英秀(法大)	姜泰德
웰터ー	韓龍洙(明大)	朴鉛植

게지 [illegible] 佐平氏에

京城府民水上大會

八月七、八兩日間

京城水上競技聯盟主催의 京城府民水上競技大會는 八月七、八兩日間 京城運動場풀에서 開催하기로된바 同大會는 全日本選手權大會朝鮮豫選을 兼하야잇스며 이成績으로 朝滿對抗水上競技大會의 朝鮮代表選手決定의資料를삼을터이라한다 그리고大會規定其他는 다음과갓다

▲競技種目‖(一般男子)◇自由型‖五十米、百米、二百米、四百米、千五百米、◇背泳‖百米、二百米◇平泳‖百米、二百米◇繼泳‖二百米◇메드레ー릴레三百米、八百米

▲出場資格‖京城府民으로 男子에限함 繼泳은 京城水上競技聯盟團體와 或은一學校를 單位로함 繼泳은 六人까지 申請할것

▲申請期日‖八月三日午後五時까

對龍中戰에 平壤高普敗

中等野球豫選初日

大朝主催의 第二十三回全日本中等學校優勝野球大會 朝鮮第二次豫選第一日…平壤高普(西鮮代表)對龍山中學(中部代表)의 第一回戰은 二十八日午後一時 京城球場에서 鹽原學務局長의 始球式에뒤어어 佐田(球)中村、津島(球)三氏審判아래 開始되바 結局九A對一로 龍山中學이이겨서 明二十九日午後一時부터 不戰一勝의 大邱商業과 準決勝에對時케되엿다(閉戰午後二時五十六分)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平高	0	0	0	0	0	0	0	0	1
龍中	0	0	1	0	3	0	4	1	A

9A·1

【龍中】	【平高】
8藤井	6李煥周
5當房	7金鎭汶
6山添	3柳宗根
7久保	1朴賢德
1高本	8崔圭璜
9高島	5盧泳均
2岩村	2韓成福
4信廣	4金道榮
3時枝	9鄭隆浹

天氣豫報

概況 七四六미리의低氣壓은 日本海北部에잇고 또弱한低氣壓은 黃河下流東支那海北部에잇다 高氣壓은 오호츠크海로부터本邦으로퍼저고잇다 滿洲는晴 朝鮮은晴曇不定으로 地方에따라 小雨가잇다 또釜山小青島에는 안개가끼엿다 琉球諸島及北九州는雨 其他는흐린곳이만타

豫報 京城地方은 今夜와 明日은 흐리고때때로개인다 京畿道全區도갓다

昨日最高 二七度七
同 最低 二一度七
今朝最低 二一度三
今日[illegible] 二五度四

第五十八回決算公告

貸借對照表 (昭和十二年六月三十日現在)

資産ノ部

	圓
未拂込資本金	六〇〇、〇〇〇、〇〇
電氣供給事業設備	三、九六二、八六一、九九
電氣鐵道及自動車事業設備	四、三五〇、三五八、〇三
瓦斯事業設備	一、六二三、八八四、三六
建設工事假勘定	一五九、九六九、三五
貯藏品	六〇五、六二三、三一
事業未收入金	三六〇、四三六、〇〇
諸未收入金	七四一、〇六
有價證券	四一六、三一〇、五一
預金	一、六六四、七三五、〇七
現金	一二五、五一九、五四
雜勘定	二一七、七〇〇、三五

資本及負債ノ部

	圓
資本金	三〇、〇〇〇、〇〇〇、〇〇
法定準備金	一、八四〇、〇〇〇、〇〇
別途積立金	一、五三〇、〇〇〇、〇〇
使用人退職給與引當金	八三三、七三六、〇〇
未拂配當金	一、〇三三、五五
諸未拂金	一〇四、四三七、二四
從業員身元保證金	六四二、一二一、九九
預リ金	四〇〇、〇〇〇、〇〇
預保證金	四七、八二五、六二
雜勘定	一四九、一三八、〇二
前期繰越利益	四一九、二七五、九二
當期純利益	一、四〇九、四七四、二五

利益處分

	圓
當期純利益	一、四〇九、四七四、二五
前期繰越利益	四一九、二七五、九二

之ヲ處分スルコト左ノ如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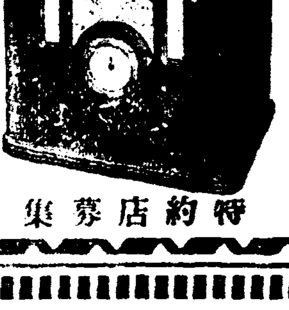
法定準備金	三〇〇、〇〇〇、〇〇
別途積立金	[illegible]
役員賞與金	七六、三三三、三三
配當金(年一割)	[illegible]
後期繰越利益	四三五、四一六、八四

昭和十二年七月二十七日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五番地
京城電氣株式會社
取締役社長 大橋新太郎
專務取締役 武者鍊三
常務取締役 見目德太
取締役 子爵 澁澤敬三
同 石坂泰三
同 福島甲子三
同 吉谷專吉
監査役 福島行信
同 関大植
同 木本倉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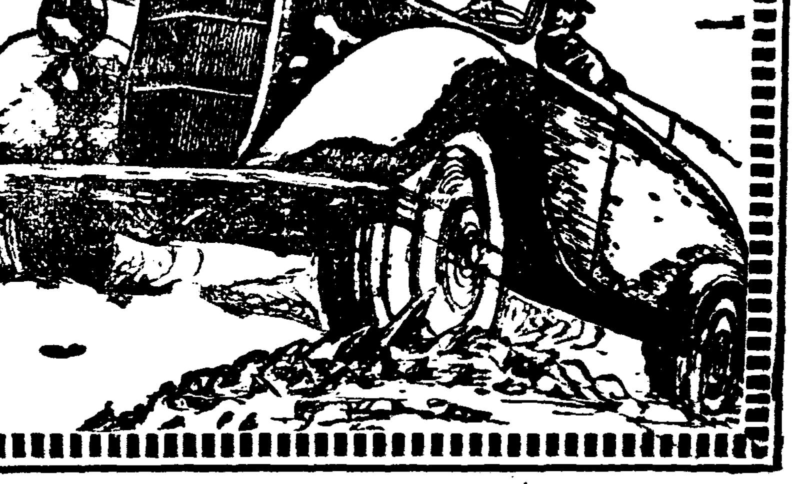
不老長壽 強精回春 更少年藥
百補丸
京城堅志町 平和堂 一劑十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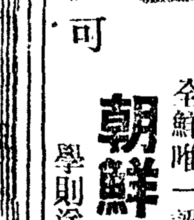
約束手形紛失無効廣告
一、金額 一金參百圓也
一、支拂期日 昭和拾貳年八月拾壹日
一、金額 一金七百圓也
一、支拂期日 昭和拾貳年八月拾五日
一、支拂場所 朝鮮商業銀行本店
一、振出人 京城府茶屋町七六番地 三益合名會社
右手形二枚를紛失하얏사기無効임을玆以廣告함
三益合名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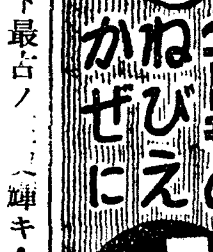
朝鮮文으로編輯된唯一의
速修 英語講義錄
▲朝鮮文으로解說된까닭에發音이正確(內容見本即送要二錢切手)
京城府樂園町五五 英語通信研究會

ラヂオはナナオラ
ナナオラ無線電氣株式會社 新築記念新製品賣出

新築記念進呈(要二錢切手)
(ナナオラ)受信機總代理店
京城府蓬萊町二丁目
光云商會總本店
御小賣部
振替京城
特約店募集

平壤 在來式 優等燒酒
名産 漢湖燒酒
地方注文도大歡迎합니다
平壤府鏡齋里十九番地 漢湖商會酒造場

新學期八月一日
學生募集
株式會社奉天タクシ附屬
滿洲自動車學校
學則進呈
每月一日開始 一ケ月十四圓
●練習車十餘臺
●在學生百十餘名
●活動寫眞敎育
●寄宿舍完備
本科 募集科目 三ケ月卒業 修業年限 九圓
受驗準備科 一ケ月卒業 三圓
(制服、制帽、敎科書、參考書)
奉天商埠地十一緯路五五
電話②二九四四番



可 認
電醫養成全國無試驗開業 醫師同樣聖業
全鮮唯一認可(失業絶無成功必至)
朝鮮高等電醫專門學院
學則送呈
釜山府榮町一丁目三三


コドモのねびえかぜに
オイン

最大ナル設備ト最古ノ(輝キ・技術的權威アル教授)
夏期自動車學生大募集 (案內書請求四錢切手)
▲見ヨ!!冠タリ本校卒業生ノ運轉免許試驗每月合格數第一位ヲ占ム
▲京城府太平通二丁目二六七番地
朝鮮總督府 京畿道認可
南大門自動車講習所
▲(第一實習場京畿道試驗場裏)▲電話本局八六七 ▲振替口座二〇五六

에키가도루
エキカトール

液体で一番よくきく
파리、모기、빈대、구데이 진득이等을根絶하야惡疫을防止하고室內를淨化해서衛生을직히라!
有効御證明
H—19

쓰리지안코
압흐지안함

事務家·学生諸位의保眼에!

로-도안약

BUSINESSMEN AND COLLEGE BOYS!
Take good care of your eyes! Because:
Your visual power greatly affects the
efficiency of your work.

001521

視力의障害는能率을低下한다

諸君! 諸君은執務中、勉學中、때때로 頭痛이나 倦怠를感하는 일은업습니까 이것은 視力을 長時間過度히쓰든지 或은 度가 맛지안는眼鏡을 쓰게되면 視神經과 直接連繫되고잇는 大腦質에생기는 異常作用의 發顯입니다。眼과腦가 그러케까지 緊密한關係가잇는것을 알엇다면、諸君은 諸君의눈에 항상充分한休養을 줄것이며、그리고、보담 新銳한視力을 盛케하야 頭腦를明晳케하며、마음쩟 執務와勉學에 能率을다합시다。그런데 上述한 때에생기는 頭痛倦怠의 症狀을 醫學上……

「眼精疲勞」

라하지만、그것은特히記帳、計算、타이피스트、講義의노-트、혹은編物、裁縫等、細書한文字의讀書等微細한 物體를 보는분에만는 近代的疾患의 하나입니다。

眼精疲勞에 걸렷슬때에、처음에는 눈이疲勞되기쉽고、物件이흐릿터분하게보이며、머리가무겁고、짓끈짓끈아프거나、또는睡眠이不足하게되면、判斷力、記憶力의 減退를 보게되는것입니다。

만일、諸君이、이와가튼 症狀을 自覺하엿슬때에는 곳 그原因이되는것을 避하는同時에 ロート目藥과가튼 眞正한眼科藥을 每日數回點眼하야、眼에休養을 주어、慰勞하는것이 必要합니다。그외에 諸君의 걸니기쉬운 眼病에……

結膜炎 이란것이잇니다。

도라홈- 俗稱 霞目、돌님눈 수시는눈、진안질、

學校眼炎 疲勞眼이라고 부르는것인바、療法으로 제나 每朝눈을 잘씻으며、눈에塵芥等不潔物을께끗시씻고、하로 二三回 ロート眼藥을點하니다。

ロート目藥은 그 殺菌作用으로 病源菌을 죽이며、消炎作用으로 炎症을除散식히여 收斂作用、鎭痛作用으로 充血과 腫痛症을退治식히는 性能이 綜合的으로 有效한 効能을다하고 잇습니다。

小兒의眼病

幼兒면 아침 이러낫슬때、눈가장자리에 눈곱이 붓호며 甚한것은 눈이띄지안코、또는 힌눈자위에、붉그스레 充血되는바、이것은 흔히 急性結膜炎입니다 어린애기들 點眼에는、시지안코 아프지안코 安心하고 使用되는、特히 小兒들을 爲하야 處方調製한 小兒用 ロート目藥이 가장 有効합니다

—適應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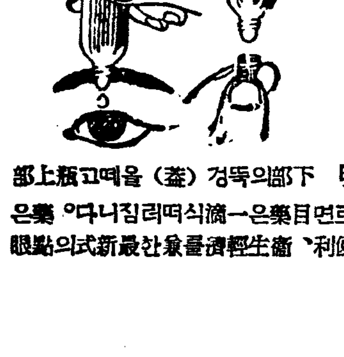
結膜炎·角膜炎·疲勞眼
도라홈-·學校眼炎·眼瞼緣炎·角膜翳·結膜充血·麥粒腫等
俗稱에쑤시는눈、돌님눈、爛目、다락눈、血眼、霞目、삼눈흐린눈、雪眼、淚眼、疲勞眼、

藥價

▼小瓶 二十錢
▼大瓶 三十錢
▼德用 五十錢
▼小兒用 二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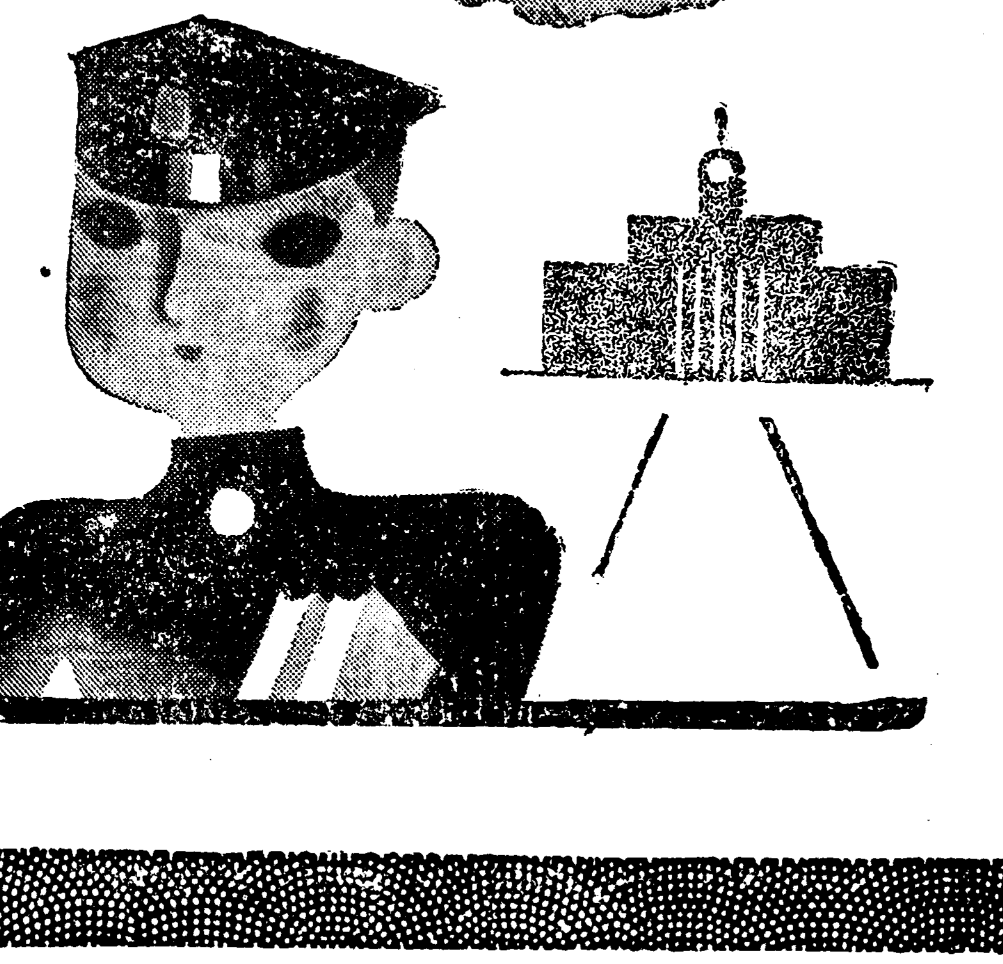
全國·어떤藥店에든지잇슴

新案特許
ロース式
自働點眼容器



◆使用法說明 下部의뚝겅(蓋)을떼고瓶上部의고무를輕하게누르면目藥은一滴식떠러집니다。藥은조금도허비안되고便利、衛生經濟를兼한最新式의點眼容器입니다。

本舖 **山田安民藥房**
大阪市東區南久寶寺町



'피차간즐겁게 여행합시다'

기차깐에서지혀야할도덕

여름에는 려행이 비교적 만케되나 무덥고 후덥지근한 기차안에서 몃시간을참고 견듸기란 그다지 편한 노릇도아닙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기차안에서도 특별히 무렵업고 무례한행동을하는이들이 만흔데 그것만은 생각할문제입니다. 그나라의 문화정도는 기차나 장가튼데서 본다는것이 외국손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전체의 명예와 체면을 위해서라도 좀 참고 지내지 안 하서는 안 됩니다.

(一)기차ㅅ간에다가 아모데나 침이나 가래를 탁 뱃지마시시다. 그건 당장남보기에도 지저분하고 도배균이 을마 다니는 원인도 됩니다.

(二) 담배먹는 차간이 따로 업스니까 할수업시 그대로 먹기는 하드라도 부인녀자를 위하야 좀 절제하고 또 먹고나서는 불루흔 담배꽁대이를 찻바그로 함부로 내던지지 마시시요 부인녀자가 그어기 때문으로 곤란을 당하는 것도따하거니와 담배ㅅ불로 내면 지어서 남의집에 화재를 이르킨 예도 종종 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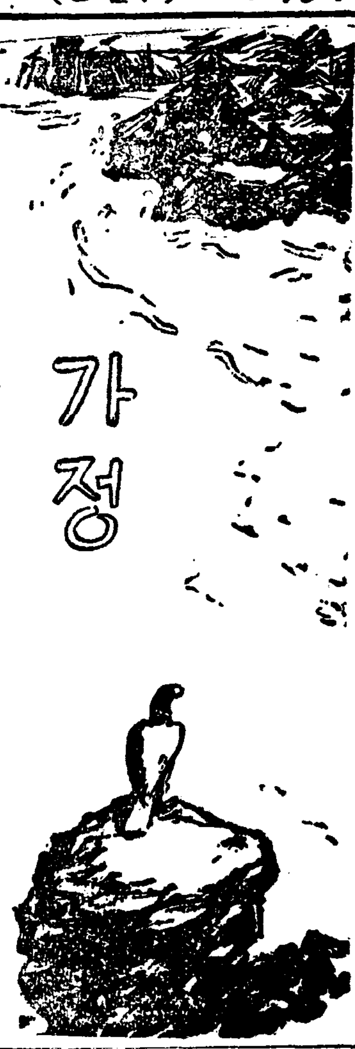
(三) 자기가 바로 창아페 안젓다고 그창문을 닷고 나리고 제자의로만 말고 남의 편의도 좀 살피어 주시다. 약한 부인네나 어린애기네가 오래ㅅ동안 억센바람을 쏘이면 그들의 건강상 재미가 업고 또 건너편으로 먼지 드러 올이어 그런때 안즌 사람들이 따하게 될경우도 업지안습니다.

(四) 그야말로 조이면서주에 숙사쓰하나만 걸치고날뛰는등이란 불상식하기 짝이업습니다. 그것도 주의해주시시요.

(五) 동행이 여러사람된다고 방약무인하게 웃고떠들고 실지어 웅얼패설을 기탄업시 지거리는 것이란 무지막지한 인간들이나 할 업니다. 그역시 좀 주의해주시시요.

(六)세면소의 물은 보통수도와 달러서 엄청한 분량이 잇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것 자기가 들고 써버리면 고만 물이 끗치어 나종 사람은 못쓰게 됩니다.

(七) 떠날 때는 차ㅅ간을 쓸어 것 지저분하게 더러운 것지오만은 애초부터 종장하게해두는 것이 조습니다



것보기와속다른 여름철실과

서럿는지의엇는지 잘못골랏다간낭패

여름에는 실과가 조타고 하지오만은 실과도종류라든지 맛이라든지 다소짐작이 서야 사먹게됩니다. 무러대고 그대로 삿다가는 의외로 돈만손을보는수도업지가 안습니다.

(一)수박

그저 무게가 무겁고 형체가 반듯한 것이 무난합니다. 땅에 다헛든 데가 희게 흑이지거나 울퉁불퉁한것은 조치못합니다. 두들겨보아서 똥똥소리가 가볍게 나야합니다 소리가 탁하거나 잘나지 안는것은재미업습니다 겨레솔이 죽죽 진것이 맛이 괜찬습니다. 녹백색(綠白色)은 갑시 싼 대신 단맛이 적고 속이노란 인도종은 맛은조흐나비쌉니다. 간교한 장사치들중에는 수박에다가 빨안물로 주사를 주어서 속여파는 자도 엇습니다. 속이 빨간것으로 익엇다고 얇잣다가는 낭패입니다.

(二)멜론

서양참외ㅅ겨이나 참외와는 겨당치 안케갑시비싼데 줄여 선명해서 화하게 보이는것이 오래되지 안흔표요 배ㅅ꼽이단단한것이 상하지 안흔 증거입니다. 그두가지만 보아서 사면 큰 낭패는 면하지만은 거기도 여러가지 종류가 잇서서 근본으로 맛이 조금씩 다릅니다. 녹백색의 알스베포리든종, 속이 붉게 누른스카레트종 속이흰 로킨지종등입니다. 그중에서 알스페보리든종이 제일 맛잇습니다

(三)수밀도

거치 녹색을 띠우고 붉은점이 크고 솜털이만허야좃습니다. 형체가 막 생긴거나 너무나하얀거나는 조치안습니다.

(四)비파

이것도 형체가 반듯하고를 이 만허보이는 것이라야합니다. 적다고 밥뜻이씨가크지안흔것은아니니 큰것을고르는것이득입니다

(五)파인애플

입새가 생생하게부터 엇는것이라야하고 그려고도거죽에 붉게케된것어 잘 익은 표입니다 거죽비츤 얼마나 조든지 입새가시든것은 의지안흔것을 다가지고 은 표적입니다 누른비치나 거나 형상이 잔것은 맛이 나쁨니다

가정을망치는 성병에대하야

부끄럽업시속히치료할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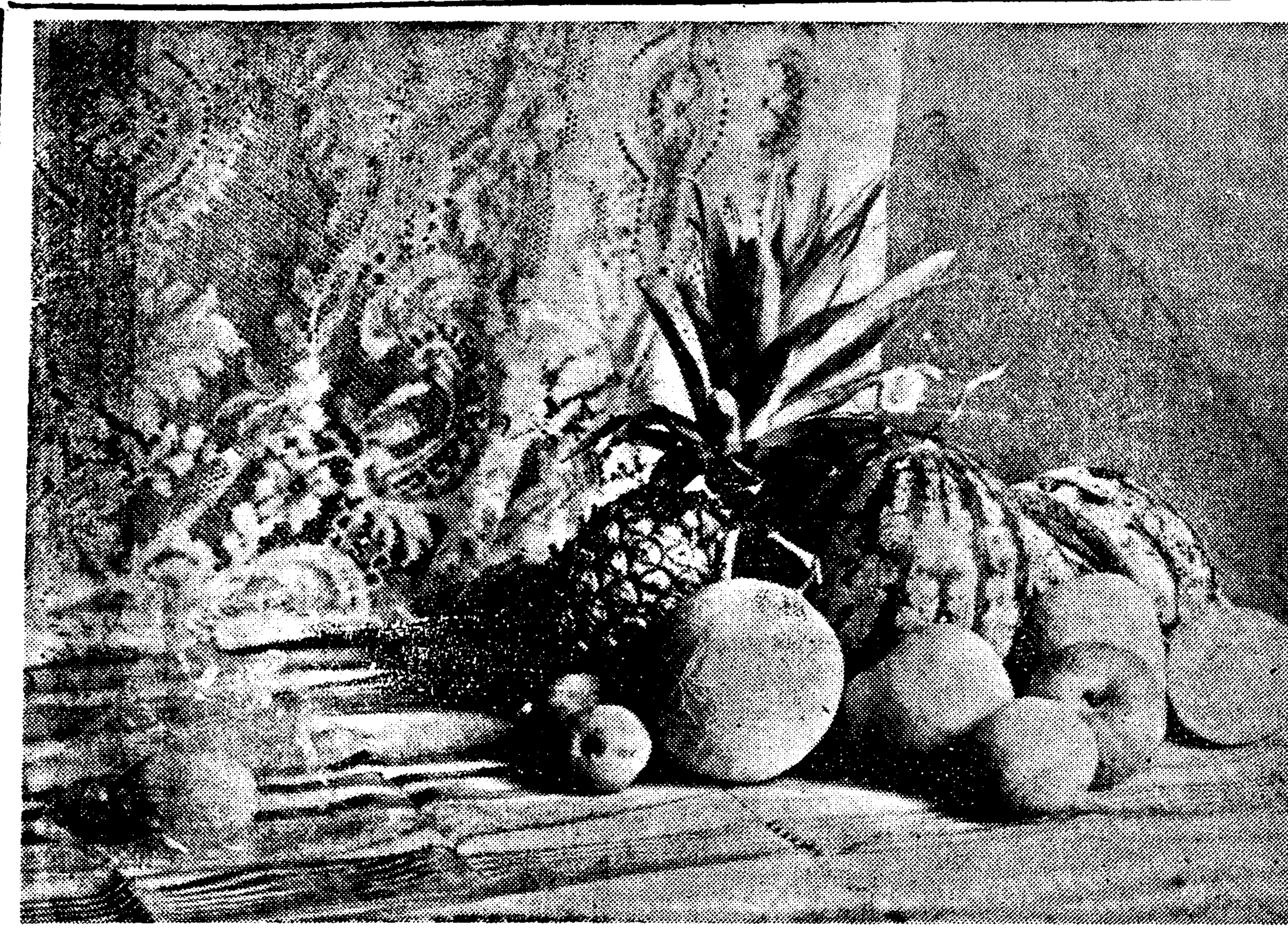
⑤ 城大皮膚泌尿科 鄭槿陽

다음으로 매독(黴毒)에 대하야 이야기하겟습니다. 제일 먼저 말할것은 임질이 비교적 국소적병인데 대하야 매독은 전신적인 병이라는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임질은 뇨도로 부고환(副睾丸)에 병독이 어르며 심하면 관절염(關節炎)을 어르킬뿐으로 그병독의 미치는바가 비교적 좁은 범위안에 국한되여잇는것이지마는 매독이라는것은 한번걸리자 속히 치료를 하지안흐면 전신의 어느곳을 막론하고 병독이 퍼지는것입니다. 각내장은 물론 뼈에도 섭하면 뇌신경계통에까지 며처 드디어 정신병이되는것입니다 그럼으로 병으로서는 임질보다는 매독이 터무니 무서운병입니다 그러나일반사람들은 매독이라면 벌써처 유명한 육공육호주사를 연상합니다 어것은 조습니다 그러나 육공육호주사를 단한번이나 두번마즈면 완치되여 버리는줄로 알고잇는것이 틀립니다 결단코 그러케 간단한것이 아니요 가장초기에도 적어도 열대이상을 맛고 또 다른주사도 하여야하며 내복약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낫자가 념어 가면 수십대의 주사가 필요한것입니다. 어것을 모르고 한두어대주사를 맛고는 다나은줄알고 내버려두는동안에 병독은 점점전신을 돌게되며 고치기가 매우어렵게되는것입니다.

그러면 여병은 어떠케해서전염하며어떠한 증세를 이르키는것이겟습니까.

이병도 물론 조치못한남녀관계가 그대부분의 원인이되는것입니다. 그러나 그밧게 키스에 의하야 입으로부터 드러오는수도잇고 의사나 간호부등이 그 환자를 취급할때 잘못되여손가락에 생채기라도 잇서 그곳으로부터 드러오는수도 잇습니다. 국소에 매독균이 침입을바드면 대략삼주일동안을지나서 이곳이 단단해지며 혹이 불어져서 니다. 이상삼주일동안을 제일잠복기(第一潛伏期)라고하며 그기안을지나는것을 제일기매독이라고하는것입니다. 병에걸린지 육주일후이면 주위의 임파선이 부어오르며 매독균은 혈관으로 드러가 전신을 돌게되는것입니다 이것을 제이잠복기라고합니다 그런데 병에걸린지 약구주일이 지나면 피부나 점막에 고유한 발진(發疹)이나 부스럼등이 생기게됩니다 매독으로인한 발진이나 부스럼등은 고유한것으로서 다른부스럼과는 다른것업니다 그런데 보통사람들은 몸에부스럼이나면 그리고 잘낫지안흐면 이것이 매독성이라고 생각하고 의사에게가서『살발산』주사를 맛기를 청하는사람이 잇습니다. 의사도 세밀한 진찰과피검사등도 해보지안코 환자가 주사를 노와달라니까 그저무려대고 놋는사람도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연한짓일뿐아니라 때로는 예상치안흔 해를입는수도 왕왕잇습니다. 왜그러냐하면『살발산』이라는것은 독약입니다. 그런까닭에 의사들이 어것을주사할때에는 그환자의 체질기타를생각해 가지고 가장신중한 태도로 하는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려대고 특히 의사의진찰도업시 맛다가는 몸을해하는수가 왕왕히 잇습니다 일례를 들면 부주의한 주사로서 살발산중독에 걸리며 간장(肝臟)이상하야 황달병에 걸리는수도 잇습니다 어리하야 매우 위독한 상태에 빠지는수도 잇고 심하면 어것으로 생명을 일허버리는수도 잇는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주사를 마즈면몸이건강해진다고도하고 또는 살결이 히여진다고도하며 또는부스럼이 도무지나지안는다고도하며 육공육호주사를 맛기를 원하는 사람도잇습니다. 특히 여자에게 이런사람이 만습니다. 그러나이것은 모두가 안될말입니다. 그런일이 잇서서는 아니됩니다.



모기장빠는법

비비면안된다

모기장을 보통빨래통에서 빨려면 적어서 주기기때문으로 때가잘 안지고 베누ㅅ물이 잘안빠지고 주름ㅅ살만 잡히게됩니다 목욕통가튼큰통에다가 물을반쯤채우고 가루비누를 풀어서 거품을 일게한뒤 모기장을반허리 걷처어 쥐고 흔들어 뺍니다. 손으로문지르거나비누로 비비는 것은 금물이니그냥 흔들더라도 질때가안지지안습니다. 그려고 말리는것도 빨래ㅅ줄에 널어말리지말고그대로 치는것처럼네귀를 걸어말리면 주름ㅅ살이 잡히지안습니다. 햇벼테 바짝 쪼이어 말리어서는 빗갈이 나쁨니다. 좋은나종말술문으의가칠해두어도좋습니다.

염색을하자면

먼저시험해보고

겨울철이를 가을ㅅ바람이 분뒤 비로소 급급히 덤비어서는 솔핍 잘 하는 안악네의도리가 아니겟다 그런것은 여름ㅅ동안에 척척 다해노하 두엇다가 염을때 엽으서야 합니다 그런데 벳짝어놀렷거나 떤버초로바꾸어 드릴것은 물도모두드리어 노하야 할것이지요 물론 물을잘만 드리어 노흐면 헌옷어색옷처럼 되는수도 업지안흐니까요 그러나 고직어나 양속가튼것은 의외로물이 잘먹고퍼터락도 꼽게뵈지어하야 도리어 손해를 보는수가 적지안습니다 그러니까 묻지가를 조금베여서 드려저지고 석회을 봄뒤가아니라면 떼퍼노코 드리기가 위험합니다.

적어서걱정인눈섭

가을되면더빠저

그방비는지금부터해야된다

여름은 아무래도 석욕이나자못해서 그빌미로 가을에가면털어다빠지는것 인테 털이빠질때는눈ㅅ섭도 빠지게됩니다. 멧닷안되게 눈ㅅ섭수치 적은분은그여치안해도 그것이 걱정인데거기다가 터빠저서는 낭패라 머리여름ㅅ동안 영양을 주어 가지고 예방을해야 될것입니다.

(一)눈ㅅ섭먹어 나빠서는 절대로 못쓰니까 그러한 눈ㅅ섭먹은 차라리 쓰지말어야합니다

(二)훈히 잔단하다고하고남은석냥개피를 가저서 그끄트로를 눈ㅅ섭먹을 대신하시는데 그것도 못씀니다.

(三)잘때는 반듯어 눈ㅅ섭먹을 씻고 자야합니다.

(四)그것을 그냥 물로 씻는것보담은 오리브기름으로 씻는것이 좃습니다.

(五)잘때나깨어서 보드레운솔로 눈ㅅ섭을 문질러 잘가꾸어갈것입니다.

비행정먹은악어

인도비토리아호수는 비행정(飛行艇)이 착륙(着陸)하는곳으로 유명한데 요얼마전 비행정을 정박시키기위하야 호수에 고무보트가 배다를터를 면밀이노흔것이 어더로인지 업서저버렷습니다 찻다찻다 못하고 다시 한개를만들어 노흔데니 이번에는 거기에 떼간데어서 되야다는말입니다 어떤 놈이 훔처갓다고 야단법석을 하고 차저 보았으나 그호수ㅅ속의 악어란 놈의 작난이것이 판명되엿습니다.

우리차지

큰물

순남이『아버지, 비도아니왓는데 강물이 어째 이러케 만히 느럿나요.』

아버지『응 우에서비가 만히와 그물이처밀려니까 그러치.』

아마 큰비가왓나부다.

이 흙탕물을 보아서는

집이 쓰러지고 사람도

상햇겟다.』

(경성사립 권동억)

長篇小說

찔레꽃 【88】

金末峰作 金熊超畵

사랑의처도(九)

현관에차저온 손님이 의외에도 유명한인것을 발견한경애는

『오셧습니까』

한마디하고 고개를 숙엿스나 그의맘은 확실히 어떤실망과가벼운 분노를 느끼는것어다.

『녜ㅡ그사이 안녕하셧습니까』

콧등에 주름살을잡히며 벙그레 웃는 영환은 자기를마즈려 그러케 당황히나온 경애가 뭇시 맘에 고마웟다.

『진작 와뵙는다는것어......그새감기로 좀드러누엇댓섯죠』

『네ㅡ』

경애는 업서서 여버지의응접실로 영환을 안내하면서도 속으로 어며케 여방갑지안흔 손님을 퇴처할방법이 업슬까 하고 가슴을조렷다.

곧의로가서안는 영환은 새로 지어 엄은듯한 면회색 양복바지를 약간 무릅으로 치켜올리며

『기쁜소식을하나 알려드릴가하고 왓습니다만』

하고 벙그래우스며 포켓트에서 파ㅡ란책을 끄내다.

『여행권이에요 오늘아침에 외사과에서 전화가왓길래 인제 가서 가저오는길애요』

하고 딱딱하고 얇다란책을경애 아페 내민다.

『네』

하고 한손으로 여행권을밧는경애의 얼굴비츤 약간당황하엿다 그러나 일분후에 경애는 곳다시 태연하게 영환을 똑바로보며

『참 전작 말씀을 드린다는게 여지껏 기회가 업섯서요』

하고 천천히 말을 할수엇도록 그의맘은 평온하여젓다.

『ㅡ이태리로가려고 여러가지로 돌편을가지고 잇섯는데 요사이 전만든경우가 그러케한가롭게 여행을 하고잇슬수는업게되버렷서요』

『.........』

마침내 오고야말 크나큰재변이 드디어 와버리고 만것처럼 영환은 새상스럽게 놀라지안헛다. 일전에 조두취에게 과수원경영을 그만두겟다고 햇든말도 실상인즉 경애의 진의(眞意)를 좀 떠 기피알고저햇든 자기의 술책수단이 아니엇든가.

무엇이라고 말을하려는 영환은 하ㅡ야케 알라드려가는 입술을 두어번빨고 손수건을꺼내 콧등과 이마를씻고

『그럼 안녕히 게십시요』

겨우 한마디하고 자리에서 이러섯다. 경애도 잡지코 이러서서 영환의뒤를따라 복도로나오며

『오빠와 좀만나 노시다 가시죠』

하고 한마디하엿스나

『또좀 가볼데가 잇서서요』

하고 영환은 조용히 현관으로 나려와 상노아이가 돌려노흔구두를신고 그리고 돌로나왓다.

영환이가 큰대문을향하여 막 서너거름 발을옴기는때 대문으로 드러오는 한청년과 마주첫다. 청년은 민수엿다.

두사람은 간단히 인사를교환하고 민수는 안으로 그리고 영환은 박그로향하여 거름을 게속하엿다.

천천히 도라나오든 영환은 돌한편에 서잇는 춘나무를 바라보자 그는 후르르 한숨을 내쉬엇다. 그춘나무만은 경애가 곳잘 말을매여두고 물과보리를주든곳이다.

『인제는 승마(乘馬)도 그만두어야지』

중얼거리고 즐거웟든 과거를 바라보려는듯이 발을멈추고 뒤를도라보앗다. 순간 그는 스르르 눈을감고 도라서버렷다.

자기가나온 그현관으로 드러간 민수를위하여 경애가 분명코 손수 슬립퍼를 끄내고 그리고 민수의 어깨아래 착부터서 나라니 안으로 드러가는것이 보인때문이다.

경애에게 안내되여 드러온민수는 응접실을지나 동편으로향한 복도를지나 이윽고 한방아페이르럿다.

경애는 방그래우스며

『이리로 드러가서요 여기는절단코 아무도 방해할사람은업시 남매분이 어떤 이야기라도 맘노코 하실수가 잇스니깐요』

하고 문을열고 압서드러갓다.

민수는 한편을 커ㅡ텐으로 막어노흔 이방한편에 죽ㅡ진열되여잇는 인형들이 첫눈에띠엿다.

『어떤것을 제일낫다고 보십니까?』

경애는 민수의 시선을따라 인형들을 바라보면서 방그래우섯다.

『그, 글세요』

유리장속에 드러잇는 붉고푸른 비단헌겁을 감고잇는 인형들은 민수의눈에 거의다 비슷비슷할뿐 어느하나를 꺼집어 지목하기가 곤란하엿다.

『이것어떼요 내가 만든것인데요』

하고 경애가 그중에서도 키가 칠신크고 꽁술머리에 빩안옷을 입고 금빗신을 신고잇는 인형을꺼내가지고와서 민수의눈아페 드리밀때 녹크소리와함께 문이 방싯열렷다.

경애는 뒤를도라보며

『웨 그러케하고만섯서 안드려오고』

『.........』

정순은 그대로 문에서서

『드러가도 조흘지 몰라서...』

방긋어 우스면서도 어느때 민수가 여집으로와서 자거도 찾거전에 경애방에서 떼옥여 경예와단둘이 저러케 안저잇는고 생각하니 그는 갑자거 자거자신이 하늘가으로 유리하여가는 길손처럼 외로워젓다.

림질을꼿치자

재래의 림질약으로는 어째 근치가못되고 늘재발되는가

東京田谷泌尿科病院長醫學博士 田谷利男

림질이 낫지안어서 고통받고 게신여러분!ㅡ그 원인은 여러분께 잇습니다

첫재로 걸렷슬때 바로 專門醫師의 診察을 바드시거나 또는 世界醫學界가 共通承認하고잇는 正當한 치료법과치료약으로 곳치시지안은까닭입니다 그러므로 病을 그리대소롭게생각지안코시거나 흑은 (宣판)에따라 먹는림질약으로써 응급적치료를하신때문에 지금것 림균이 전멸되지안코 기회만잇스면 늘再發하고잇지안습니까

둘재로는 림질은 남녀국부에병균이 들어가서 發病되신것을 똑똑히 깨닷지못하신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병균이활동하고잇는 표도조직에 직접치료하는것이 第一重要할뿐아니라 속히할것은 當然한리치임에도不拘하고 實際을 경유하야 불과얼마안되는 약기운이 오줌에섞겨서 그곳에 일으게되는內服藥을 잡수시나 强한淋藥이엇스며 엄청나게 弊害이 생겨잇는 까닭에 낫지안는것입니다

세재로 專門醫師의治療를 밧지못하신 患者이게신분은 自宅에서라도 똑가튼 효과를 어들수잇는 醫師專門藥『부라온淋藥겐고ㅡ루』를 모르시기때문입니다 『겐고ㅡ루』는 직접병화근(남녀국부)에 약하방울넣너면 단二分間에 치료효과가 나타나는약으로써 二重殺菌療法이 강구되어잇는 完全根治藥입니다 더구나 조곰도 부작용의염려업시 남모래 간단히 百發百中으로 短時日에根治되는藥이오며 『겐고ㅡ루』만이가진 二重殺菌療法ㅡ즉一號겐고ㅡ루로 전면적살균을하후 조직의변화와병균의특증을참작한二號겐고ㅡ루로 속속드리 병균을죽여서 근치식히나니 곳치료하시사根治식혀주십시요

世界서처음發明된二重根治療法의偉效

림질은 직접환부에 치료하야만 근치되는것이니 세계의학계에서共通증인되자 局所治療劑(가루약을 애교로입히든것, 선천약, 크림등)가생겻스나 모도가一長一短의 폐단이 잇서서 적확한효과를 나타내지못하는중 부라온鏡이 發明되야 모도가 해결되엇습니다 더구나 급성환자나 만성환자나 다가티 本劑의 一號를쓰시고 二號를 그만치 쓰시면 二重치 殺菌이되어 속속드리 뿌리배힌답균이 모조리죽고 흥진이 곳 압울고 단시일안에 오줌이말거지며 근치되어버립니다

ㅡ겐고ㅡ루에는 정가는同一하나 一號(남자용)二號(녀자용)三號(부인용)의 구별이잇스며 보급약…一圓九十錢, 十七日分三圓八十錢이오니 속히병고에서 버서나실여러분은 조끔도 주저마시고 조선글분으로 자세히 병세를쓰신후

東京市芝區通新町十三ノ一 總代理店合名會社河原商店 (振替東京三五〇一九番)

으로 주문하시면 본보에독자에한하야 송료四十七錢을부담하고 대금이환으로도 송약해드립니다 (자택치료서進呈)

다 二號藥도아직 만히남엇스되 淋菌의 근치를專門醫에게 保證바덧습니다

鬪◇病◇報◇告

이病으로十年! 全快를期하고三週日로

京城 鄭泰禹

남보기華麗한外交家生活을十有餘年을繼續하고보니 回顧하면回顧할수록 그生活의羞恥와 得意가 交錯하야 마음을散亂케할뿐입니다 더구나큰汚點은 交際에잇슴니다며 자조出入케되는花柳界......。 이로써淋疾은 벌서自己의持病가티되야 全快云云의賣藥廣告를보면 진절머리가나며 다만념우쾌할때만一時的 效果잇는藥으로그고개만 넘기고 全治란 斷念한지오래엇엇습니다 이러는中 近日에 貴社『겐고ㅡ루』의 廣告를 바라보든中 吉原病院長이란文句가눈에띄엿습니다 高名한佐藤先生의創製라하니엇덜가 하고記事를대강읽어보니 果然 그實地及學問上確證잇슴을깨닷게되엿습니다 여기서從來의그릇된생각을바로잡어 一大決心을하고 모든犧牲을악기지안코 全快의길에猛進한結果 今日의깁븜을 손쉽게어덧습니다 나와가튼環境에서生活을하고잇는여러外交家를爲하야 敢히나의 過去를披瀝하며로速히그들의覺醒을바라는바입니다

慢性患者가 全快를바라기까지

釜山 宋禹日

『慢性림질환자가 全快를바라다니......허허』하는것이 지금까지의 상식이엇엇습니다 나도 물론 그랫섯습니다 누구나다 漢藥이나 그렷치안흐면 새로낫다는 內服藥, 注射藥으로치료하니 再發또再發하야 고생하는것도 무리가아닙니다 각자신의투병기록입니다 라에 나의 절친우某君이 學理的으로說明하면서 局所療法을알니워주엇스며 어의第一藥연겐고ㅡ루를 권하더서 그래어첫수의중고를 듯고 一號二十五瓦入을 먼저주문하야 치료를시작하엿습니다 만성고집어려 그리쉽게는 안나리라고 생각하면서 一號를쓴후 二號를주문해다 노코서 所營事에분망중 치료를 낫고잇섯드니 前에깨닷지못하든놈의 경쾌함을알게되며 病중세가조끔도나타나지안습니다 어때버로소 여름의신속함을알고 계속하엿습니다

創製發明 元東京吉原遊廓 吉原病院長 佐藤榮先生

독신남녀때는 물론이요

가정생활을 하시는 분은

부부협력하시와 겐고ㅡ루로

치료하시사 속히 근치식혀버립시다

東洋劇場

七月廿七日부터廿九日까지三日間期上演

開演時間 午后七時半

劇團 靑春座 第五回公演

◆上演劇本◆

『어엽분[illegible]보의숙엄』 一幕二場

『봄눈이들때』 二幕六場 林仙主作

○來週七月卅日부터 『愛怨十字路』 全九場 『靑春日記』 全四幕 乞期待

日活京都特作 大城龍太郎主演 『自雷也小僧』(雷光解決篇)

廿八日ヨリ五日間 毎日午前十一時半始映 各席全部 大人學生三十錢 小學生二十錢

ユニバーサル特作日本版 『銀翼の戰慄』

日活多摩川特作 中野かほる、中田弘二主演 『新版 護國の母』

大每國際ニュース

全鮮第一封切 黃金座

◇滿都人氣歡呼當盛裡에當宮續演

◇七月廿五日부터卅日까지 滿員!滿員超滿員第二週續演

名劇團藝苑座公演 六十餘名大總出의豪華陣容!

順次上演藝題 每夜八時開演 每夜交換上演

◎어린이야웨우니 一幕

◎그女子를 死刑하기까지 三幕

◎港口의小夜曲 一幕

◎꼿업는花園 五幕

◎웃는설음우는樂園 三幕

◎市街戰 四幕

◎일음을이즌사나히 四幕

▲絢爛舞臺進步的바라에티! 幕間─단쓰、獨唱、合唱、舞踊、스켓치、民謠 藝苑座主幹金鍾燦

往十里町 光武劇場

◇七月二十四日부터三日間 土曜日曜祭祝日은晝夜二回 每夜六時부터七時半始映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英國B·I·P·超特作日本版 世界大戰間諜秘史戰爭活劇!! 巨匠아ㅡ사우ㅡ즈監督作品 (二大特選名畫大會)!!

『祖國을직히는 [illegible]』

◇메도로포이탄映畵社提供全發聲版!! 海洋活劇 南海의脅威

◇마키노ㅡ토ㅡ키超特作品 時代劇 赤垣源藏 監督 牧野正博氏 主演 澤村國太郎氏

京城新堂町 電話(本)五六七七番 新富座

二十七日ヨリ 四日間

本町三 中央館

毎日晝夜三回興行

コロムビア超大作連續映畫 名犬リンチンチン 名馬レツクス 主演 『神馬レツクスの復讐』 第五·六·七·八篇 全八卷

大都映畫特作超特連續時代劇 近衛十四郎 大河百代主演 『疾風蝙蝠』 前後篇 全十六卷上映

學藝

近代名僧小列傳 ㊂

湖岩

普雨와時勢

普雨를 말하려면 그出現의時勢를 먼저 살펴볼必要가잇다。李朝初로 中宗末까지 무릇 百五十年동안에 世祖의一代를除外하고는 대체로 崇儒排佛의政策이 繼續되여온바 太宗世宗兩朝에는 宗派를減殺하고 寺財를沒收한 것은 말할것도 업거니와 文宗때는 人民의僧尼됨을禁하고 또僧尼의王城出入까지를 禁함에이르럿다。그러나 이 禁令이 그대로勵行되엿는가하면 그것이實現되지못한證據로는 이런禁令이 몃번이나 反復되엿슴을 보아도 알것이다。거기는 幾多의理由가잇겟스나 最大理由의 하나는 佛敎信仰의 뿌리가 깁히社會에 박힌때문이다。아무리 禁斷하야도民間에서 그禁網을 犯하는者가 續出함에야 어찌하랴。그뿐아니라宮中에서선언제나 佛事의中心이되엿스니 王室도私家와 마찬가지로 婦人의信仰은 儒가아니오 神佛이엿슴이다。歷代王后의 崇佛한先例를 列擧할것업시 世宗의後宮과成宗의貞熹大妃가 崇佛하엿슴은 가장 두드러진代表的一例일 것이다。그러나 佛敎가成宗以後로는 이처럼婦女와下層社會에 남아잇슬뿐이오 上流社會는 오로儒敎의獨占판이 되고말앗다。더구나燕山의暗黑時代를 지내여 中宗의儒敎至上時代에 이르러는 崇儒帝王의발미테 짓밟핀氣息이奄奄한佛敎는 거의朝不保夕의 危境에 빠젓는데 이 一髮의危機를當하야 法運을 垂絶에서 다시 挽回한이가 곳怪僧普雨이엇다。

文定后와普雨

普雨가 비록 怪僧이라도 文定王后尹氏가 아니면 法運의挽回를 實現하지못하엿슬는지도 모른다。自古로宗敎가政治를 떠나서는社會的으로 生長및發展을 엇우지 못하는原則을 여기서도 볼수잇다。

普雨라는 宗敎家와 文定后라는 女政治家가 서로기다려垂絶하게된佛法을 復活시켯다。

文定은 中宗王妃로 中宗께서 崇儒主義임에 反하야 文定께서 崇佛主義이엿고 中宗께서 名儒靜庵을 登庸한 것처럼 王妃께서名僧普雨를 起用하엿슴은好對照가된다。

普雨는 麟蹄郡雪岳山百潭寺僧으로 明宗五年에 江原監司鄭萬鍾의 擧薦으로 文定王后(明宗母后)께 紹介되여 그의意見을 聽用케되매 禪敎兩宗의舊制를 復興하고 度僧法을 公許하고 僧科를 恢復하는길을 開通하엿다。그가 判禪宗事都大禪師奉恩寺住持가되여 大師奉先寺住持와 한가지로 禪敎宗風을 宣揚하매 儒臣들은 크게 疾惡하더니마침文定后께서 明宗廿年四月에 昇遐하시자 儒臣들이들고일어나 普雨를 妖僧으로 몰아同年七月、濟州에 竄逐하엿고 그리하야 畢竟 濟州牧使邊協에게 杖殺되고말앗다。普雨의 略歷은알수업고 그의遺著가잇슬뿐이다。

朴燕岩의藝術과思想

그의生誕二百週年記念 (3)

洪起文

燕岩의 著作을 다른 古文家의 著作과 比較하야 적어도 세가지의 特色이 잇다。그特色이란것이 모도다 燕岩의 獨特한 觀角으로부터 構成된것은 두번 말할必要도 업는일이다。

(一) 官號地名을 되도록 朝鮮서 通用되는 그대로 써서 決코 中國式으로 고치거나 古號로 대신하지 안는것이니 例를들면 許生傳中 卞氏本與李政丞浣善 李公時爲御營大將 그附記小文中 趙判書啓遠爲慶尙監司 蜋丸集序中 夫人怒曰執謂大監智亞而兩是 烈女咸陽朴氏傳中 對曰通引朴相孝之兄之子之嫁咸陽而早寡者等이다。政丞이나 判書란은 오히려 모르되 大監과가치 俚俗된 말은 붓이 더러워질까버 燕岩이아닌 다른 古文家로서는 敢히 쓸엄두도 내지 못하는바다。

(二) 朝鮮傳來의 風俗習慣을 만히 記錄하고 또그固有의 古諺俚語를 만히 使用한것이니 例를들면 琴鶴洞別墅小集記中 士京自循其髯後金圈曰云云 虎叱中 衰服者不食 嬰處稿序中 外舐水瓠 全吞胡椒 愚夫草序中 指條爲鬪 嘆醋爲甘 等이다。勿論 종기를 끈데라고하는 것은 끈엇다는 意味요 끈다는 意味가 아님 것으로서 指條爲鬪의 그릇된 解釋은 千慮一失이라고 하더라도 여러한 境地는 실로 燕岩의 開拓地요 또 獨擅場이다。

(三) 朝鮮서 傳해오는 野談史話等을 만히 採取한 것이니 蜋丸集序中 黃政丞과 林白湖의 이야기 念齋記中 宋旭의 이야기 尺牘中 눈끈장님의 이야기와 鄭鄕의 글씨이야기 烈女咸陽朴氏傳中 守節하는 寡婦가 돈을 굴리든 이야기等의 例다。勿論 이러한 野談史話는 專門으로 蒐錄한분이 업지 안하거나 燕岩의 功績이 特別히 두드러지다는것은 아니로되 文章家로서는 그러한 努力이 일직이 燕岩以前에도 업섯고 또 그以後에도업섯다。

以上의 세가지가 交錯되는곳에만도 朝鮮의 鄕土 色이 相當히 놉지 안할 수 업스려니와 그래도 그 세가지는 좀시 조그만 形式에 지나지 못 하고 잇다。그의글을 보다가는 무엇이라고 꼭 指摘하기는 어렵지만은 鄕土의 그네들과는 자못 갓지 안 한 呼吸과 脈搏이 들리어지고 잇는것 가티 느끼어 진다。그런데 그러한 느낌은 晩年作보다도 少時作에서 더한層 濃厚히 박게되니 所謂 外傳의 十傳은 그中에서도 또가장 代表的이다。文章의 틀이 잡히고 迫力이 센 點으로는 虎叱이나 許生傳에 미치지못할것이 사실이 갓지만은 딴意味로서 虎叱이나 許生傳만못지 안케 重要한 評價를 밧게 될것이다。穢德先生傳中 枉十里蘿蔔箭串青石郊茄蔬水弧胡瓜延禧宮苦椒蒜韭薤菁坡水芹 利泰仁土卵의 一句는그當時 漢陽附近 野菜의 産地를 瞭然 케하며 廣交傳中初羽林兒 各殿別監駙馬都尉傔從垂袂過雲心心名妓也 堂上置酒歌琴瑟雲心舞以下의 一句는 그當時妓生房의光景을 彷彿케하지 안는가? 더구나 兩班傳의 一篇은 兩班이 아무엇인가고 辭典을 찻게 될때 조자최를 갓추어 모도들 兩班이쯤 有明文段以下는 한개의 說明的漫畫요 또 兩班의 서슴이 바야흐로 푸른리서 나는 새도 떨어트릴 그 當時 가난한 兩班이 富者에게 兩班을 파는 사연은 한개의 豫言的卓見이 아닌가? 아니 兩班傳을 爲始하야 穢德先生傳 馬駔傳等은 虎叱 許生傳과함께 朝鮮 諷刺文學史上 永久히 빗날 作品이언만 少時의 戲作이라고 하야 그子孫들조차 文集속에 너흔 것을 區區한말로써 변명하기에 이르럿는데金滄江은 그변명을 들어주기는커녕도리여 살려버리지 안한것을嫌絶한 詩辭로써 責望하얏다。燕岩의百歲後 知己로서스스로 自負하고 그래서 燕岩의 文集을 兩次나 出版한 滄江으로서도 어려하거니 그나머지분은 十傳을 侮笑、厭嗤、唾棄하는것도 當然하다。燕岩의 諷刺文學은 오죽 朝鮮만이 아니요 漢土를 通하야서도 斷然 他人의 추종을 許치안는다。莊子의 寓意的 허풍과는 性質이 다르고 韓退之毛穎傳의 조그만 諧謔와는 距離가 멀고 그나머지의 文章家들과는 比較할 것도 업다。

錬金術

詩論

五星子

現代의詩人이라는것은 韻文을使用할줄모르는 사람들을 이름이다。하고 누가비꼬아서 말을하엿는데 辛辣하고도 알맹이가 잇는소리다。

勿論詩는 반드시 韻文이요 小說은 꼭 散文이어야만한다는 法則이 잇는것은 아니다。昔日에는 일즉이 韻文으로 쓰여진 小說이 存在하엿고 또한 우리는 오늘날 散文밧게 알지못하는 수만흔 詩人들을 對面하고 잇는것이다。詩와小說의 限界는 結局 散文에 잇서 서만의 詩와 小說의 限界로 되여버리고 어러한 現狀을 사람들은 가르처 詩나小說이나 다함께 그것이 一定한 活字로서 組成하여 表現되고 다시 똑가튼 速度로 歎讀하게될 때문이라고 說明하며 오로지 當該社會의 生產技術에 依存하는 文學形式의 一例로만 結論짓고 만다。

여것은 事實이다。오늘날 누구나 小說을 읽는習慣으로 詩를 읽어버린다。그러나 이대로 韻文의 精神은 果然 衰亡하고 말것이냐? 우리는 이것을 어떻의 詩人들에게 提議하야 반가운 反省과覺悟를주고싶다。눈으로 보고 頭腦로 思考하고 입으로 중얼거리게만하는 詩外에 단한篇이라도 정말노래부를수잇는 詩를苦待하여 마지안는다。

◇ ◇ ◇

一讀一筆 저녁때 ②

朴魯甲

고올과 고을 새에 조그만 내 한줄기 흘으고 내 동편 언덕에 과히 높지안흔 로산이 보기 실치안케 솟아잇다。

산이 귀한 이근처에는 여간 계법 존경을 밧고잇는 것은 물론 어산 바로 아래 동리가 나를 키워준 나의고향이다。

여름이면 마을사람들은 냇에 나가 물고기를 잡어다 흔히 귀한 반찬을 맛들어 먹는 이익이 엇는 대신 에 냇물이 자주 범남하는 탓으로 흔히 수파를 당하야 농사를 바리고 주린 배를 채우지 못하는 손해가 여간만 흔것이 아니엇다。

빈한한 어 마을에 오래 오래 살수 잇는 것이 결코 그네들의 자랑이 아니엇다。토박한 산비탈에 여저다 뿌려진 콩씨가 다행이 말러붓지 안코 그슬어 겨우 커서는 다시 씨를 전하고 전하는 것이나 진바업는것이엇다。

여름 철——농사 철이되면 그들은 비를 거다린다。기다려든 비가 계속하야 오면 흉족하기도 전에 그들은 다시 가슴을 태운다。

소나거 한줄기만 단단히 퍼부으면 바다가되는 곳이요、하늘에서 비가안오면 물한모금구경할수 업는 깁고도 마른들인 연고엿다。비가 와도 걱정、안와도 걱정、그야말로 걱정은 어마을의 빼안의 동무엿다。

올여름에도 주욱 이전에 들은 벌써 두차례의 홍수를 격것다。

맨 첫번물이 들어것은 아버지께서 아직 돌아가시기전 일이엇다 그러나 위독하신 아버지는 터는 어 걱정에 겨를 여 업스시엇고 그 다음물은 돌아가신며칠 뒤일이다。

내 나이일직 열살을 넘기 전부터 어 홍수에대한 공포를 느끼게 시작하엿스니 그야말로 어른의 걱정을 그대로 올마받은 것이엇다

이마을서 삼대를 살어온 어떤친구가 하루는 나에게 다음과 가튼말을 하는것을 듯엇다

『사람이란 거지를 애초에잘 잡어야지! 貧은 땅에 어때를 못거 하필 요따위수렁꼿을 차자 들엇습고! 자손들이 헤어날 도리가엇나!』

이 친구는 자작농가로는 어엿한 명색 안가는 사람이엇다。

「암말도 말게。갑잔 이곳 땅아니면 자네가 어데가서 땅얻자 노릇 할수잇겟나!」하고 나는 이러한 말을 몃마디 던저두고 헤식은 웃음을 혼자 웃어 보일도 업잔허 잇섯다。

못 살면 조상을 탓 한다고 쓸데 업는 망상이 아닐까。

빼만장자의 외아들로 태여난것을 비관할 필요도 업거니와 빼만장자의 아들로 못태여난것을 비관할 스릴는 짓도 잇슬필요가 업지안흔가?

부모가 벌어 준돈으로 부모를 봉양하는것 보다는 제가 번돈으로 부모를봉양하는 것이 얼마나 유쾌한 일일고마는 다 어려운 일어 아닌가! 양친을 여인 사람의효도 어야기는 불순한 여기주의처럼 들려지지 안는가!

자식은 못난 자식중에 효자가 잇는것이요 잘나고 어처만 안을 별수가 잇는가!

후회를 하거나 울거나 웃거나 쓰건 맵건 이것은 다 산사람의 할바다。제도리를차리거나 말거나 심장에 피가한번 식고 숨이 떠러진뒤에야뉘 농히알리! 원망을한들 그보다 더큰것을한들!

歐米學生의趣味生活 (一)

朴周植 寄

英國

皇后陛下를 名譽會長으로推戴하고잇는 英國의代表的 補習學校폴리텍닉補習學校는 生徒數夜間部一萬三千人、晝間部三千人、卒業生五千人以上이나되는 傳統잇는學校이며 精密한코—쓰미테서 非常하게緊密한 職業的工夫와 實習을하는學校이나 그別館을보면 堂堂한『홀』이서잇고每土曜日敎師와 生徒들이 一團이되여『댄스』會가는것도 開催하고잇다、豪壯한 屋內運動場도잇는데 女子들에게 開放되고또音樂俱樂部가 組織되여서 一週二回生徒의 自治的인 各音樂團의演奏가잇서 活動寫眞의 映寫機가二臺나 備置되여잇는데 每週一回映寫會를 行하는것이다—地下室에는 豪華한休養室과 食堂이잇고 그裝飾設備等은 매우훌륭하며 또매우整頓되여잇서 休養室에는『라디오』가備置되여잇고 食堂에는 學生이自由로 食事를하게되여잇다。메뉴는 一食四十錢以下로서 校友會의補助其他로 精選된材料를 廉價로提供하는것이다。이러한方面에 學校當局이 마음을쓰고 校友會가盡力하는點을 注意와熱考할必要가 잇는것이다。其他밋든만補習學校로말하드래도『컨덕·스쿨·오브·부릿티—·아—트』等에서도 多少의 相違는잇서도 모든學生生活에努力의方面과 愉快한方面과를가지고잇는데는 變함이업다。最近勃興한『론돈』大學에對해서보아도 여기의學生은 約一萬三千人이라고하는데 그中三千人쯤은 通學이許可되여잇스나 그다음은 모도大學設定의 寄宿舍에 收容되여잇다 女子의大學生의『카레—지』는『리—젠트바—크』와『웨스펠드』와『호로우윈저—』의三個所에設置되여잇서 밤은十時의門限이나 學生들이 自治的으로 校規를지켜 舍監은學生의監視보담도 食堂에나가 彼等과질겁게 會食할수잇도록 用意하고 生徒와의接觸을 圖謀하고잇스나 學生의日常生活에는 거의干涉하지안코 또한個人의일에關해서 指令、命令하는것가튼일은업다 敎師는 恒常彼等과朋友가되여 日曜의 遠足에 休暇나 旅行等에도 行動을 가치하며 人情味에채인 平和한 氣色이 늘보인다 學校에서하는 課外의開催物에對해서도 各各生徒中의 各代表가 모혀서 生徒同志들끼리 協議한뒤에 決定한다 이러한때에 敎師는 늘生徒個人에게 잘援觸하고잇슴으로 生徒의 決議等에도 敎師의 意外로생각할만한일이 比較的업는터이다 이러한때의 生徒의 集合場으로서 大學內에特히 全體的인『유니온클럽』이設立되여잇고 여기에 男女等의學生總代가 모혀서 議事를討論하고 各各意見을 交換하야 決定한것을 生徒監에報告하는것이다 生徒監은 大槪는 生徒들의報告와가티 決裁하야주는것이普通이다 그대신에 生徒는 반드시 그決議를實行하기위하야 努力을싸허못는것이다

여러한 各구락부의 建築物及地所는 學校로부터 補助하고또는 구락부를 위하야大學內의一部에室을 提供하는等 이것도學校의 한가지重大한 事業으로重히取扱하고잇는것은 全혀意外로生覺이되엿다

生徒들의 主催하는主催物에對한 外部에의 案內狀等은舍監이나 또는各所屬學部長의 이름으로發送하는것이普通이다 全然師弟一體의 責任으로모든것이進行되고잇다。또一年에한번乃至는두번舍監과學部長이나 官舍等에서生徒를 代表해서主催者가되다。園遊會를 開催하게되는대 이것은生徒들의第一조와하는行事中에 하나이다 每年開催하는 學生딴스大會도生徒들의 興味를끄는것中의하나이다。其他運動競技로는學生의가장 힘쓰는것으로『크리켓트』『테니스』『풋볼』『호케—』『水泳』『뽁싱』『펜싱』等凡十九種類나 잇는데 그것은各各十九個의 俱樂部가 設立되여잇서 身體의 鍛鍊과함께社交와 交友에 精神修養上趣味의 敎養上매우 貢獻을 하는것이다 此等各俱樂部는 生徒의내는 會費와 各카레—지로부터의 補助金으로 維持되여잇고 또한이것이 全學生俱樂部와 잘連絡關係를 保全하고잇다—。

漢拏登山記

湖南風土歌

滄海를向하야달리면서 ③

李殷相

절지은 新羅사람
어디로갓나

裡里라 金堤라
너른벌판을
기름가른 萬頃江
돌아나리네

王宮塔 서잇는곳
바라보나니
馬韓의 옛서울이
저기로고나

母岳山 金山寺는
못는이언네
차라리 다행하다
들르지말자

저속에 울고잇슬
甄王의魂을
일깨워 오늘다시
괴롭게하랴

百濟의 남은曲調
어떠하온지
井邑村 시악시게
물어볼꺼나
內藏山 가는길이

저보아 白鹿江
끈허업는데
百濟는 어이그리
찌르울는고
禪雲寺 崇林寺
남엇다는데

예서얼만지
갈마기 나는곳을
바라보노라

군대군대 커작은
뽕나무바테
열따는 새악씨
아미숙이고

한연소 고개들어
대신말하되
白羊寺 가는길에
여기랍니다

들지나 山돌아
長城이라네
天下絶色 吉兒야
그리울고나

黃龍江 이르는말
吉兒嶺고개
숫장수 마누라도
어쁘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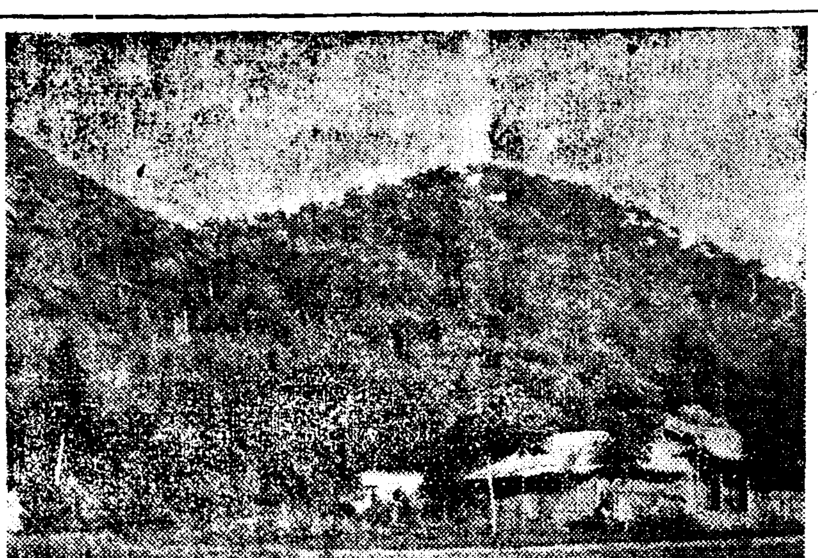
여름은 林谷어나
너른밭일네
어뇌山서 울겨온
어름인지오

南으로 문득보니
十里二十里
긴숲을 기픈들
저기로구러

榮山江 떠돌드는
羅州平野에
錦城山 저야말로
雄壯이로세

月出山 千峯을
헤다말고서
鶴橋川 물소리에
醉하는고나

靈巖이라 돗단배도
조지는가
가는지 오는지
그대로것네



咸平이 어드메냐
靈山이어디
夕陽에 나는白鷺
데버아닌가

木綿花 이름노픈
三鄕任城에
牧牛庵 쇠북소리
들으려더니

어느덧 儒達山
그늘지신곳
물결이 발을씻는
木浦港이라

오는배 가는배
뱃고동소리
나그네 마음은
설레는고나

三鶴島 긴달재
졈어나리고
반가이 웃는듯이
마중하는데

해는지고 저물어
달이오르네
萬戶鎭 바위우에
거니옵나니

바라보매 漁火는
깜박어리고
한밤을 나그네
잠못들게네

(寫眞은 湖南線沿線의竹林)

001522

훌융한
美肌作用과
벗꺼름막는効果

힌百合가튼살결을만드는!

모든물건이腐敗하기쉬운여름、粗惡한크림을쓰신다는건大端危險합니다。

水分이過多한것、골고루펴이지안는것、變色하거나量이減해지는것은모두살결을가혹하게害치는粗惡品이외다。여름은特히實質的으로조흔구레—무를써주십시요

이點에잇서서信用하야쓰실수잇는것이……레—도구레—무입니다。살결의新陳代謝를旺盛히하야여드름、부름을一掃하고잔주름과느러짐을解消하고榮養이잘되기때문에魅力이넘치는若肌로됩니다

★

魅力이넘치는본살의美를害처버리는것은까마케탄惡性벗꺼름입니다언제든지벗꺼름을모르는힌百合가튼살결을願하시거던特히벗꺼름을막는効果가優秀한구레—무를써주십시요

그點에잇서서正直한科學은實驗의結果벗꺼름막는効果는레—도구레—무가가장卓越하다는것을證明하고잇습니다레—도구레—무에含有된特殊한成分은强烈한日光의紫外線을가로막어살결에黑色素가생기는걸막기때문에훌융이惡性벗꺼름을막어서언제[illegible]지美[illegible]한若肌를保存합니다

レートクレーム
레—도구레—무

매달려울고시픈 五百萬圓金

내福에닷지안허주어다만노키만하네 돈못쓰는富者라면나도한목

銀行出納係 고추장지막

돈이흔해진다! 이말은누구의입에서나온말인지 무슨秘訣이야기처럼 들기도전에 정말銀行□上昇一路—여름水銀柱모양으로 올너가기만한다 한편에一圓몃十錢式주고 사두엇던市外의땅이 一年이못되여서 二十倍넘게올너가서 富者가되엿다는消息이 한두사람이안이요 불과[illegible]까지도 개천가에서 모래를파두지고 쇠끗을주으라고 애를쓰는판이다。

邦說—이러한 돈타령속에 하나의꿈이 꾸여지지안코는못백인다。

대채 銀行收納口에안저잇는 친구는 요지음 엇던한낫의꿈을 꾸는가하고 잠간드러다보앗다。

鍾路네거리에 자리잡은 돈의殿堂—무룩돈나라의 陣營을은 村總裁商의 카렌다에 그려잇는 돈鬼神가티 얼굴이 박선字에 목덜미는 羅牡牛모양으로잘 주름이 척느러저잇고얼골에는 저윽히 滿足한喜悅을나타내려니하고 살창업혜 대여섯다。놀나지 마려라 돈의神모양이여야할 彼氏는記者와 中學同窓、이미昨年에부大商科를 맛친莫君이엿섯다。이친구는 빼만앙상하게 남엇고 빼마르기로行名한친구다。

그야 려델라도 이친구모양으로 앙상하게 생기고도 돈이 만혓스니하고 간단한 人事끗테 일을시작하얏다。

「자네 하로에 돈을얼마나 만지나?」

「글세 그건이사람아 會社의秘密인데……」

「그야 이사람아 적은數字라면 會社의業績으로 창피하기에秘密로하는게지 만케뿌르어쓰면 도로혀 자랑이안인가」

記者는 오래간난에 맛난친구에게까지 職業이 가진바善良한取引을 하지안코는 안되엿다

「가령十萬圓이라면 내가셀때는 二十萬圓쯤으로 올려쓰던 되지안나?」

오·케ー 그는 아직 순진해서 곳잘 말을드럿다。

「正確한 數字는 내가하로에 바더서드리는 돈이 朝鮮銀行에것까지 十五萬圓가량되네」

「돈내음새란 어떠한겐가?」

「藥房돈은 藥냄새 生鮮집돈은 고기냄새……그리고 모다 코리타분하네 돈을제일 헤아리기 어색하고 딱한것은 드러안진 女子들의 貯金돈 잇는대로 주머니에 돌돌마나너헛든것이라 만지기가 困難하고 어떠것은 돈에다가「언제맛나볼고?」하는편지를 써둔것도잇다네」

「자네月給이얼만가」

「말도말게 하로에十五萬圓式한달에 四百五十萬圓이란 돈을 만지고 月給 六十圓을바드는 封紙를바드면 도리혀도안코마음이련비여서 쓰기도 못하기겁게쓰여지네 그러니빗을지고 月給날이면 빗쟁이에게몰이고」

(아ー달에四百五十萬圓을 만지는彼氏도 빗쟁이에게 壓迫을當하는 銀行의一사람이다)

그래도옷을은 께끗이입어야하고……생각하면 꿈가트니

「그돈이 全部자네돈이라면 무엇을 하겟다고생각한적이잇나?」

「이사람아 여기는『面錄』(드면 스면錄算)을 외울여가가업네 그저작구헤아리기만 하는것이니하고 그저機械처럼 헤아리는것일세」

이친구는徹底한레아리스트로때는 그런생각도 해오는데

「그러나成發으로 잡이잘오지안그돈이내돈이라면 洋服한부터주어버리구……그다음엔 따도산 이라도 하나사고 그다음엔 친구들을 모다불너다모아노코 永登浦參酒工場에서 내집까지 鐵管을뭇고……」

아ー한낫의꿈은 부프러오르는麥酒거품과가치헛되도다 카메라의 라이트가번쩍하자善良한내친구의꿈은 깨여저지고 中國사람하나가 큰가방에다 紙錢을잔득너허가지고와잇다 그는다시헤아리기시작하엿다

보ー세夫人

廢物蒐集의妖魔 巴里의獵奇·世界의話題

무엇이던지 모으구시퍼하는것은 세상에서 흔히보는일이요 守錢奴라하는것은 돈과生命과를 바꾸버리도록 이것을貴重케 생각하고 모아두는데야릇한 快感을 느끼고잇스나 여기에 나오는이야기의 主人公은 廢物을蒐集하는데 快感을 느끼는사람이다。

巴里의市外—서울로 치면光熙門外쯤되는 부레산스區보ー리街는 貧民들이사는 거리이건만 이거리에 커다란 四層빌딍이잇다

이빌딍은 外觀으로보아 이러한 貧民街에 잇슬 性質의建物이아닌데 이집의 女主人보ー세夫人은 폰티느市의 富裕한 商人의딸로서 音樂修業을 爲하야 處女때에 巴里로왓다 여기서 보ー세라는 靑年과 사랑하는 사이가되여서一九一四年 레이ー느街 三十一番地에서 同居하게되엿다。

이때부터 그女子는 天性인廢物蒐集欲이 이러낫스니 거리로 도라다니면서 썩은고기덩어리와 쓰레기桶에서 生鮮뼈다귀、코푼종이를 날마다 집에 가저다두엇다 사랑하는 男便의 食卓우에는 소고기파는집에서 주서온 썩은 고기와料理집에서 버리는 먹다남은料理가 올려안젓다 男便은 이런줄 모르고 그저 사랑하는안해가 지어주는 飮食이려니하고 먹엇다 그러다가 하로는 이것이發覺되여서 內外싸움이 벌어낫슬때 그女子의對答이 멋젓다。

『당신은 대체廢物利用이란것을 모릅니까』

하얏다。이女子는 종이 조각 쇠ㅅ조각들을 모아두엇다가 大戰後上昇景氣로 그것이 一萬五千프랑에팔려서 제법 돈을벌게되엿다。

이러케되고보니 이女子의집에는 房과마루의 區別이업시썩은고기와 코푼종이 뒤섞여가든것이 채여잇스므로 여름이되면 썩는내음새가 거리에퍼지고 귀뚜이와 쥐가모여드러서 견딜수업다하야 住民들이실혀하엿다。하로는 男便이참다못해서

『대체 너란 人間은 動物가운데도 가장 더러운 動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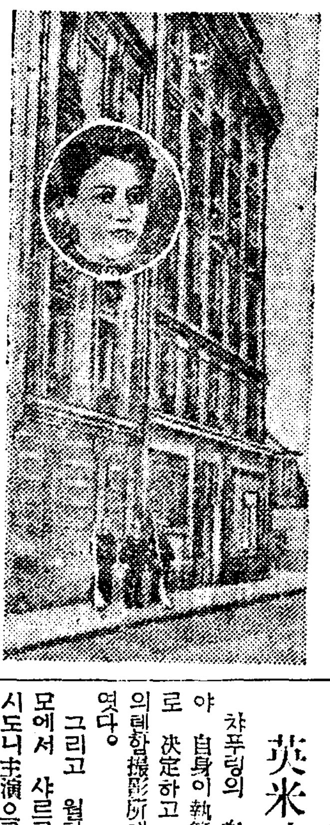
하고 소리를 노펏다 그랫드니 이女子는

『이義理를 모르는사나이』

하고 칼로 男便을찔러서 重傷을입혓다 男便은 退院한뒤即時『너와는살수업다』하고離婚을 宣告하자 그는 집에다가 불을지르고 放火犯人은男便이라고 告發하엿다 그뒤에女子는 放火한事實이 드러나서 殺人未遂放火罪로 四年의懲役을 하게되엿다 四年동안服役을하고나오니 自己의것이라고는 하나도업고 그냥거지가 되엿다 거리에서 지나가는사람의 同情을求하고 잇다가 偶然히 옛날男便보ー세君을 만나게되여서『다시는 廢物을蒐集하지 안켓다』는 約束미테 보ー세와 다시살게되엿다

그리하야보ー세는十五萬프랑을드려서貧民街가까운곳에四層住宅을짓고 그女子를 마저드리엿다 그러나 三年이지난뒤벌써財産과 建物全部를 自己名義로 만드러둔 公證書를내여보이고 男便을 도리어쫏처내고말엇다

이리하야 지금도 그큰것에 巴里의 더러운 物件이란 物件은모두 가저다가 싸어두고 電燈불도 켜지안코 캄캄한방안에 혼자드러안저서 滿足해한다 그래서 이 그로테스크한 집을구경하겟다는 사람이잇스면 三프랑式의 入場料를 밧고잇는데 이廢物蒐集鬼는巴里의話題가되여잇다。現在그집에싸여잇는 廢物의現價는 約九十萬프랑에 達한다고한다



(사진은보ー세夫人과그의집)

林長二郎實演

市內明治座에서

日本時代劇映畫의人氣男 林長二郎君은 七月二十七日午後한時半 京城에到着하야 市內明治座에서 때마침 上映中인 林長二郎의主演映畫『十層主稅』의幕間에나와서 一段팬에게 實演해보이리라한다

英米映畫提携

골다中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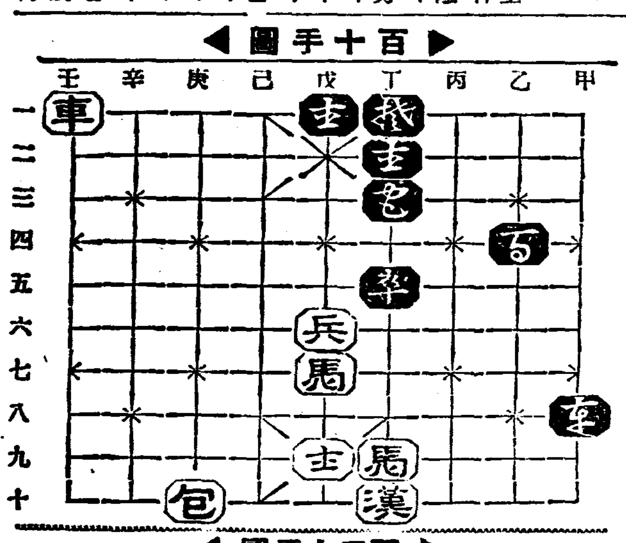
챠푸링의 次回作은 例에依하야 自身이執筆한『리ー센씨ー』로 決定하고 이것을 론돈필모의레함撮影所에서 製作하기로되엿다。

그리고 월타ー웽자도 론돈필모에서 샤르르·보와에이 시도니主演으로한作品을 製作하기로 되엿스며 월리암와이라·루이스 마이르스톤의 各監督도同所에서 製作하고 米國映畫監督의重鎭푸랭크·캅부라도 콜럼비아와 契約이 完了되는대로 渡英하야 론돈필모에서 作品을 내리라한다 이것은 론돈필모의알렉산더필다가 사무엘골드윈과함께 本年度부터 유나이테트社의 主權을잡은까닭에 英米스타ー交換의諒解가 成立되여골다는 米國一流映畫人을 招集하야 明年度에四十八個의大作을내리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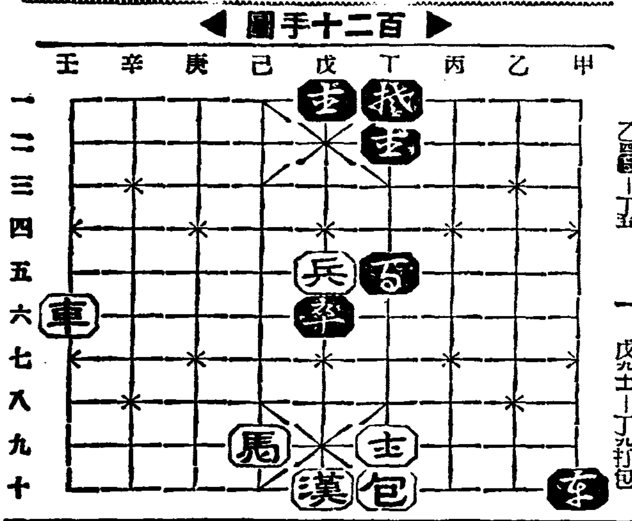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二十)

漢 李在鳳　楚先手 許鏞

◀百十手圖▶



◀百二十手圖▶



丁五卒—戊五呼將
丁七漢—戊七
戊五包—戊六打兵
戊七馬—己九
乙四卒—丁五

庚七包—丁七
甲八車—甲七
壬十車—壬六
丁三卒—丁九打馬
戊九士—丁九打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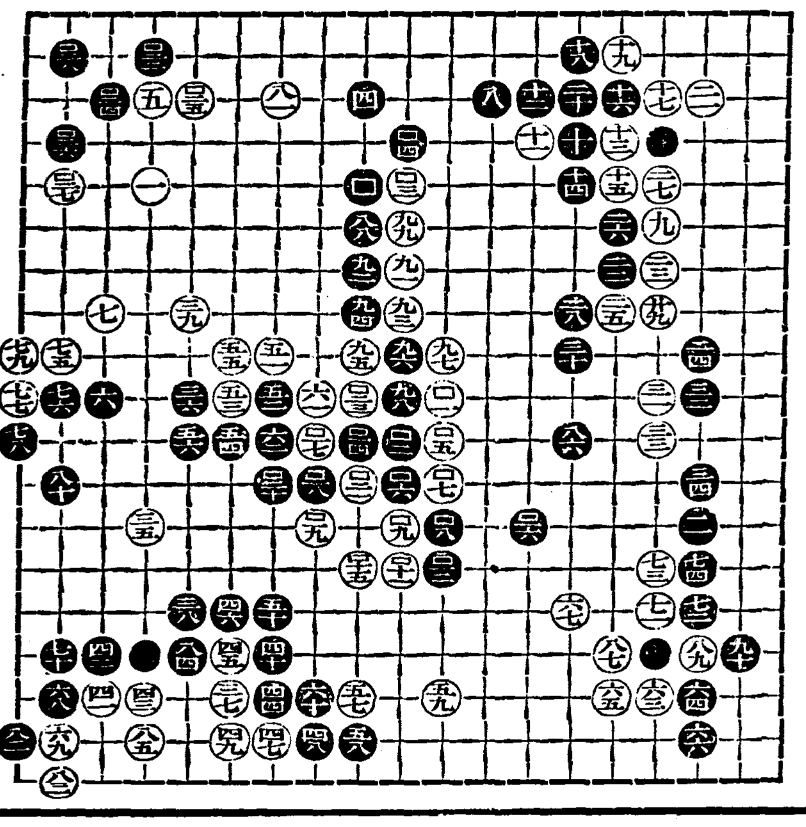
映畫都市

米國 오하이오의 찬세이라는都會地에 사는 사람들은 늙고젊고사내고 안악네고 모도다映畫俳優로 나서게 되엿다。그러다고해서 그地方의 住民이전부映畫會社로 들어간것이 아니라그地方 엇던會社에서 映畫機械를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아모거나 박아서고만 公會堂에서 놀리고 잇는것이다。그러니까 누가 어떤때 어떠케어되를 가다가 덜컥 映畫에들어서 銀幕우에 나타나게 될는지모르게되엿이다。그것도虛榮心이랄지 그러한 일이잇슨 이래는 길ㅅ거리에往來하는 사람이 버쩍늘어서 갑작이 市街가번창해젓다고。

本社主催 圍棋對局譜 (8)

白 廣瀨仲子　黑三點置 尹昊鉉

○一二三 子의十二
●一二四 子의十一
○一二五 子의十四
●一二六 庚의十三
○一二七 丑의十一
●一二八 丑의十二
○一二九 丑의十三
●一三〇 寅의十二
○一三一 子의十二
●一三二 巳의二
○一三三 子의十
●一三四 午의三
○一三五 辰의三
●一三六 未의四
○一三七 未의五
●一三八 未의二



觀戰記

黑庚의十三은 白이丑의十三으로 劫構成함을 是意外다·黑이巳의二로 劫이되지아니한가 辰의十七이 差强일까하노라 誠

라디오

二十八日(水曜)

◇午後六時三〇分 노래공부(一) 一、하ー모니카 二、작은별 朴景嬉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外賓演兒童세분
◇同七時 趣味講演 감피이야기 李一
◇同八時 時局講座 白寬洙
◇同八時三〇分 音律 畿山會相 朝鮮正樂傳習所
◇同八時五〇分 라디오小說『面지』金末峰作 沈影
◇同九時一〇分 一、사발가 二、靑春歌 三、念佛 四、긴아리 五、打鈴 張鶴仙 金秋月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東) 和洋合奏
◇同六時(宮) 記念物語
◇同六時三〇分(東) 座談會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同八時(東) 落語
◇同八時三〇分(東) 管絃樂
◇同八時五〇分(大) 義太夫

二十九日(木曜)

◇午前一一時一五分 講演 女詩人許蘭雪軒이야기 文一平
◇午後〇時五分(東) 木曜콘서ー트 레코ー드音樂
◇同一時五〇分 野球試合實況 (國語)—京城球場으로부터中繼 —全國中等學校優勝野球大會朝鮮豫選
◇同六時三〇分 노래공부(二) 一、하ー모니카 二、작은별 朴景嬉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外賓演兒童세분
◇同七時 經典解說 金顯大
◇同八時 農村講座 (一)稻의病害와防除法 金雄珏
◇同八時三〇分 一、도라지打鈴 二、興打鈴 三、늴리리야 四、오돌똑 [illegible]
◇同八時五〇分(平) 라디오드라마 "가을花園" 全一幕 配役 [illegible]

第一放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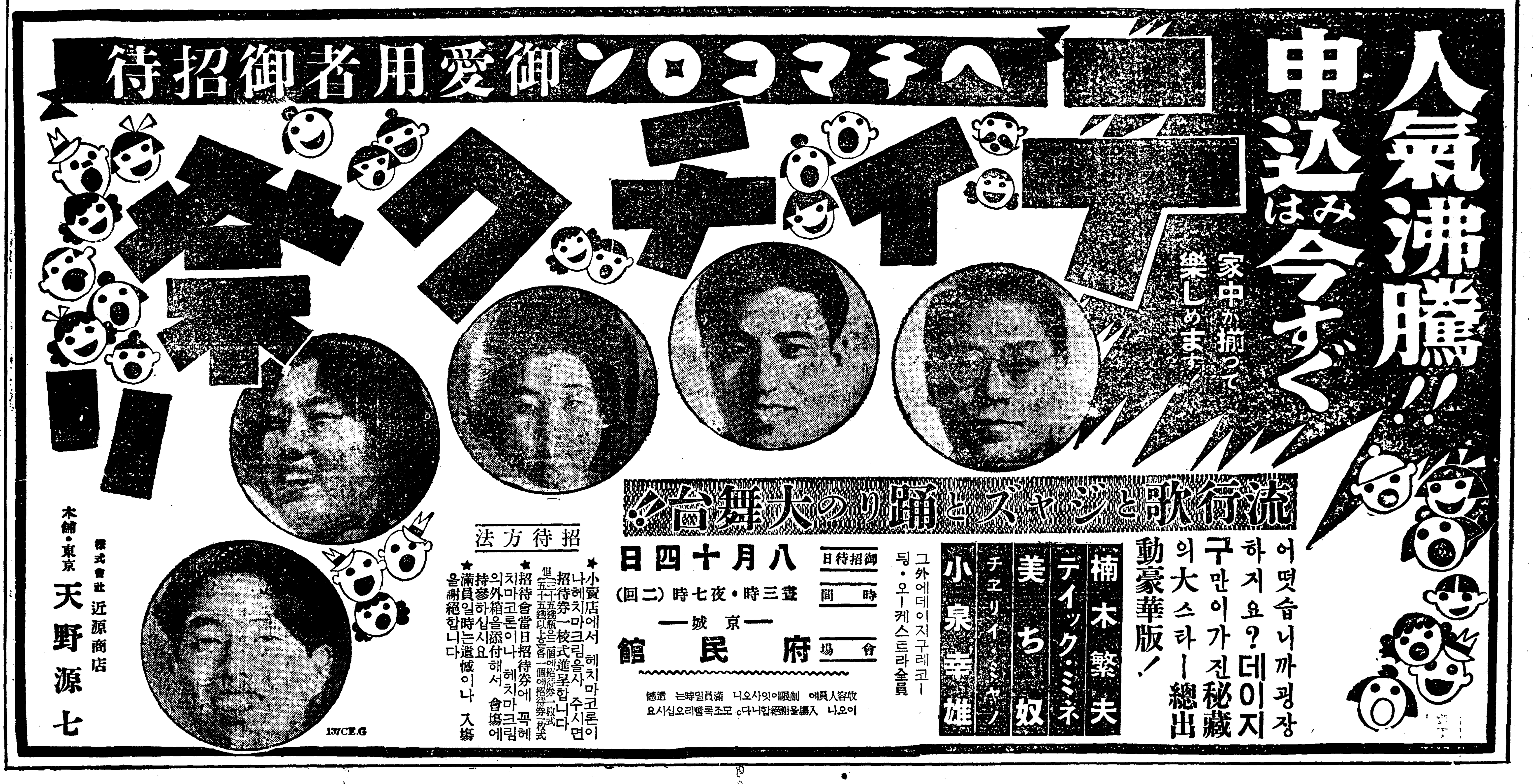
◇午後六時(熊) 天然記念物
◇同六時三〇分(東) 歌物語
◇同七時三〇分(城) 農山漁村時間
◇同八時(東) 長唄
◇同八時二五分(東) 風琴
◇同八時四五分(東) 俗曲
◇同八時五五分(東) 講談

三十日(金曜)

◇午前一一時一五分 講演『自然科觀하시다』 成樂榮
◇午後〇時五分 伽倻琴倂唱 一、短歌 漢城歌 二、唱劇調 鶯香歌 崔蘭珠 杖鼓 韓成俊
◇同〇時五五分 野球試合實況 (國語)—京城球場으로부터中繼 全國中等學校優勝野球大會朝鮮豫選
◇同六時三〇分 童話『별나라에서온 난쟁이아가』 朝鮮日報 崔益善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夏期課外講話 銀河이야기 韓琰表
◇同八時 時局講座 崔南善
◇同八時三〇分 歌曲 一、界面二數大葉 二、界面頭擧 三、界面編 四、編 安鶴仙 金美花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 楚漢歌 二、唱劇調 가、토끼打鈴 나、沈淸傳中臨塘水가는데 朴玉花 杖鼓 池龍九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城) 追分及詩吟
◇同六時(熊) 天然記念物
◇同六時三〇分(城) 製氷見學
◇同七時三〇分(東) 管絃樂
◇同八時(東) 라디오드라마
◇同九時(東) 時事解說



中部版

平康에도暴暑
華氏九十四度三

【平康】 평강일원에는 요지음은 례에드믄폭열로 별로큰하천이업는고원지대의 지방개들은 더위에갈바를몰라 허매이고 잇는바 지난 어시사일과오일에는 구십사도강의 폭열로 신기록을짓고 잇는데 피서의방책으로 평강읍 약야수(藥若水)에는 주야로인산인해를 일우고잇다

海陸의資源을開發 廣大한林野도利用
港灣新改築、水力發電、鑛山採掘等으로
躍進하는江原道의産業界

【春川】 강원도는 옛날부터 별로 보잘것업는 산악이 중첩한 조선십삼도중에 가장 미미한 도(道)라고 일반이 인정하여왓는데 근자에 이르러 완연히 백오십칠『마일』의 동해안(東海岸)에는 어업이 년년히 발달하야 어획고가 년산이백오십여만원에달하고 기타 지하자원(地下資源)의 개발은 더욱 괄목할바잇서 금은광(金銀鑛)은 물론、삼척(三陟)녕월(寧越)의 석탄광(石炭鑛)의 대대적발굴은 각방면에 적지안흔 충동을주며 항만(港灣)의 신개축(新改築) 무진장의 수력발전(水力發展)은 석일통견시대의 강원도를 여지업시 파괴하여버리고 근대과학으로서 해륙의 보회를 발굴하는바 강원도는 모름직이 약진도상에 처하얏스며 더욱이 강원도 총면적의 팔할이나 점령하고 잇는 림야(林野)에 대하야 그간도상당한 고려를 하여왓지만 금년부터 십개년계획으로 리용구역을 설정하야 무리한 식수만하지말고 구역구역을따라 림야로 농경지로 합리적으로 림정(林政)을 시행하야 화전민(火田民)의선도는 물론 산간농(山間農)에대하야 특히고려할모양으로 벌서기본조사에 착수하얏는데금후의 진전은기대되는바 적지안타고한다

忠北臨時道會召集

【淸州】 충북도당국에서는 임시도회를 칠월이십칠일경 개최할 예정이엿섯는대 북지사변등 비상시국에당하게되여 천연하엿는대 오는팔월초순일오전열시부터 제일회의실에서 개회하기로결정되여 각도회의원에게 소집통지를발하엿다한다 금번임시도회에 부의될 토의사항은 다음과갓다

一、追加豫算一萬圓의件 一、起債關係의三件 一、繼續費支出變更의件 一、議員權拋棄의件 一、副議長選定及 議員席決定(議長提案)

三角地↑↓梨泰院
"빼스"運轉時間延長?
許可만나면午後九時까지運轉

【京南】 지난삼월부터 개통신용산삼각지와 이태원사이를 연락하는 경전(京電)『빼스』는 현재오전일곱시에서 오후여덜시까지 운전하는바 장차다른교외와가티 오후아홉시까지 운전시간을연장할예정으로 경전『빼스』과에서는 약이주일전부터 당국에운전시간연장허가원을 제출하여노앗다하며 허가가나는 즉시운전시간을 연장하리라고한다

京城、果川、龍仁間의 新作路今秋竣工
卅萬圓工費로三年間工事
近畿交通에一大曙光

【京南】 서울장안을 눈아페두고도 이곳까지 화물을 운반할길이 업서 큰곤난을 바더오든경기도시흥군과천읍(始興郡果川邑)일대와 용인(龍仁)을 중심으로생기는 큰도로가 오는가을에는개통된다 이때까지 과천지방에서는 화물을 서울까지 운반하자면안양(安養)을거처서 서울로오게되엿스며 용인지방에서는경동철도로 수원을거처 다시 서울로 운반하엿다 이것은 시간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큰손해엿슴으로 경기도 토목과에서는삼십만원의 예산을세우고재작년삼월부터 부내흑석정(黑石町)을기점으로하여 이도로공사를시작하엿는대 이공사는흑석정에서동작정(銅雀町)으로 시흥군신동면양재리(始興郡新東面良才里)에서용인으로 분기(分岐)공사로하여예정대로 순조롭게진행되여 오는 시월경에는 개통되리라하며도로가 완성되는때에는 과천용인지방으로는 경부연락도로에도중요성을 가지고잇는관계상 이것을예상한부내 모자동차업자는이곳에 (승합자동차선로권 허가원까지도당국에 제출하여잇다고한다

農村貧民文盲退治

【牙山】 충남 아산군 염치면 대동리(忠南牙山郡鹽峙面大洞里)에거주하는 김정환(金正煥) 유중―

暴炎의仁川에
縊首自殺二件

【仁川】 살인적폭서는 사람의신경까지 마비케함이던지 바다의 인천에 익수자살이건 발생하얏다

▲지난이십칠일오전열시 인천부송현정(仁川府松峴町)팔십삼번지륙십오호 고영식(高永植)(五七)은 륙십당년에자녀는물론의탁도 할곳이업는 외로운신세로 세상을비관하고 자기집들보에목을매고 무참히도 세상을떠낫다고

▲이십팔일 오전십시경 월미도(月尾島)옥어진사립속에 년령이이십이삼세된 묘령미인이또한 익수자살을하얏다는데 소지품이별로업서 그신원을 알길이업서 방금각방으로 조사중이라한다

仁川에서"煙草祭"
店舖裝飾競技會도

【仁川】 조선총독부 연초전매국 인천판매소주최의 정이천 연초소매상점 포장식대회를 개최하고 이십륙일은 연초제를 거행키로 하얏다는바 입상자는 다음과 갓다한다

第一組 一等 西京町 朱奉基 二等 濱町 長田우메 三等 本町 伴康衛 三等 港町 國松弘 三等 京町 金求龍

第二組 一等 濱町 難波瀨一 二等 桃山町 韓升愚 三等 松島町 梁萬石 三等 大和町 安熙爽

金浦郡內各農村振興會現狀

【金浦】 김포군내 현재 농촌진흥회수는 이백팔십오개소로서 소화팔년도로부터 십이년도까지갱생계획실시부락수는 륙십구개소이란바 각농촌진흥회의 각종공동적 시설상항은 날로진전되여가는 상태이나 아직도 철저한 시설이 못되엿이 엇서 군당국에서는 일층더 지도와 독려에 노력중이라는데 본년유월말 현재의 시설사항을 드려보면다음과 갓다한다

一、振興會集會所 二三九 二、警鐘 二○七 三、國旗揭揚臺 一七一 四、共同耕作 三三 五、共同婚喪用具 一一七 六、共同沐浴 二○ 七、改良井戶 二五四 八、備荒貯穀及貯金 一○九 九、라듸오 四 十、農樂器 一○八

農村婦女夜學

【蘇萊】 부천군소래면(富川郡蘇萊面)에서는 농촌 진흥 운동의 갱생부락에 한하야 일반가정에게부를 기재하도록 하엿스나 무식한탓으로 기재하지못할뿐아니라 부녀에게도 진흥운동에대한 제반사항을 설명하나 농촌부녀라 무식하야잘이해하지못함으로 이를 철저히하기위하야 남자는물론이지마는 여자에게까지 갱생에 대한것을 실시하기위하야 녀강사 일인을 초빙하야 일반부녀의 문맹을 퇴치하기로되여 지난이십이일부터본면상대야리(上大也里)에 여자강습소를 설치하고 낫이면 일반가정을 순회하야 농촌진흥운동의 설명을하고 밤이면 야학하야 지식를 향상식혀 일반의일상생활에 제일필요한것을 부녀의손으로 기재하도록 교수하리라는데 성적이양호하야 강습생이 삼십여명이라하며 강사는홍간간(洪侃侃)씨라고한다

京仁街路에 自動車事故
被害者入院治療中

【仁川】 지난이십륙일 오전구시사십오분경 인천부화정 (仁川府花町)삼정목 경인산업도로에서부도정(敷島町)삼번지 김동식(金東植)(二五)이가 운전하는 자동차와 마차를끄을고오든 마차부대화정(大和町)일백 칠십륙번지 리수남(李壽男)(二七)과 충돌하야 중상을입히여 방금 천구(川口)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라한다

地方人事

▲有馬速夫氏(産業技手)新任人事次本報金浦支局來訪

料亭女將大金獻納

【牙山】 온양온천(溫陽溫泉)의료정개화관주인 학강화(鶴岡花)여사는 현금삼백원을 국방금으로동오전리재향군인분회에 기탁하엿다

京城人味覺의寵兒
梨泰院僧桃大豊
年産額一萬五千圓突破

【京南】 년산액십오만원을 산출하는경남지방 원예업(園藝業)중다른지방에서는 볼수도업는 전설에도잇는 효도(孝桃)라고일홈놉흔이태원승도(僧桃)가 금년에는기후와 기타여러가지 관계로근내에 희유한대풍이라하며 따라서 시장에서 소매하는 가격도 예년보다는 매우싸리라한다

衛生週間實施
平康署에서

【平康】 한동안 염열로 평강일원에는 한재의 고통을밧고 잇던중그동안 가끔오는 구준비로기후의변작관계상 병균이맹위를주고잇서 벌서 금년도내에 사망자가칠십칠명의 고 올흔 인간생명에 큰위협이되며잇는바 당지경찰서 위생계에서는 민중위생보급을 철저적으로 보급할필요가잇다하야 오는팔월일부터 칠일간을 위생주간으로 정하고 지금그준비에 분망중이라는데 주간에실시할것은 다음과갓다한다

週間內에行할事項(自八月一日至八月五日內에) 臨時淸潔 蠅取縣賞 (未詳)無料健康診察 衛生宣傳삐라配布

強盜로몰렷스나 잡고보니賭博犯
一團四名、仁川署에

【仁川】 파기록적폭서에 시달린 남어지에 저녁의소풍을엇고자건니는동행인에집단한가두에 현금을강도주한강도가잇다하야 순행하든경관이 필사의노력으로잡고보니 도박범이엿다는 여름저녁의『난센스』한토막이잇다 인천부만석정(仁川府萬石町)최일환(崔日煥)(三二) 정대호(鄭大好)(三三)김헌주(金憲周)(三三) 리정히(李貞熙)(三○)등사명은 지난이십륙일오후칠시경만석정(萬石町)언덕『아카시아』수풀사이에서 도박을개장하얏다가 최일환이가김헌주의 현금삼원오십전을 따채로 도박을폐장하라함으로 맛침내말다툼을 일으키여 격투까지일으킨후에 상원빼앗서가라다가전기와가튼소동을일으켜여 맛침내 도박현행범으로 인천서에인치된것이라한다

金浦郡民의熱誠
國防獻金千餘圓遝至

【金浦】 현하북지사변이 날로급박하여가는 이때에 김포군내에서도 각방면에서 국방헌금이매일답지하는중인데 지난이십오일까지 군내면당국에 국방헌금으로 기탁된 헌금총액이 벌서천여원에 달하엿다는데 관계당국에서는 감사함을 마지아니한다하며 그기탁한 주소씨명은 다음과갓다한다

北邊里明珍鎬 一百圓 北邊里鄭行寬 一百圓 北邊里吳順基 一百圓 場基里洪宜鎬 五十圓 雲陽里一區 金龍海 四十圓 北邊里黃祿成 十圓 洪浦里 里民一同 八十圓 坎井里二區里民一同 三十圓 坎井里一區里民一同 四十圓 豐舞里 里民一同 八十圓 沙湖里里民一同 三十圓 雲陽里二區 里民一同 四十圓

蘇萊面江倉村民도
國防費로十圓獻納

【蘇萊】 지난이십육일부천군소래면강창리 강창촌(富川郡蘇萊面江倉村)이십칠호에서 국방비로 금십원을 소래경찰관 주재소에 가져왓다는데 자세한 내용을듯건대 동리진흥회장(振興會長)박홍순(朴興俊)씨와 청년유지 고원순(高源舜)씨가 그동리를 위하야만흔 활동을 한다는데 금번시국에 대한것을 일반에게설명하엿든바 전동민들은 이에비치여한때 절약하고 약소하나마 국방비로 헌금하자하야 이구동성으로 가결하고 금십원을모집하엿다하며 무운이 장구하도록 매일동경을행하야 묘배한다하며 국기를달려 국민된 의무를표시한다는데 소관주재소에서도 그성의에 감사하며 그모범행위에 찬하함을 마지안는다

洗浦에訓練所設置
滿洲移民을指導
氣候와風土가滿洲와酷似한平康郡
今秋에第一回生募集

【洗浦】 이민국책(移民國策)에의하야 조선에서는 매년열만호식십오개년동안계속하야 선만척식회사(鮮滿拓殖會社)의 주선으로다량의만주이민을 하게되엿는데이민정책의 만전을기하기위하야 각방면으로 고려하든중 동부에서는 이민지도자 훈련소를설치하게되여 각방면으로 그후보지를 물색하든중 기후와풍토가 가장만주와비슷한 고원지대인 평강군(平康郡)세포(洗浦)에 설치케되여 불일 본소와기숙사를 건설하고 오는시월초순에는 제일회의 훈련생을 약이백오십명가량 모집할계획이라고한다

高麗磁器組合創立
開城元町公普校를中心으로
技術者는卒業生採用

【開城】 개성원정 공립보통학교(元町公立普通學校)에서는 어번에특히 도당국과부당국의 후원미테 약삼천원의 공비로 고려자기제조조합(高麗磁器製造組合)을 조직하고 불원간 동교후원(後園)에는 전기제조공장이 완전히 락성될것이라는바 사업에 권위잇는 삼명의 기술자를초빙하야 작업을 개시할날도 머지안헛다한다 그런데 이곳에사용하는 직공은 이방면에 재질과취미를 가진 동교졸업생을 다수사용할것이라는데 고종조(高宗朝)이십삼대 아―득한 옛날로부터 이"고려자기"를발명하야오던것 고려독특의 찬란한문화를 자랑하는 개성에 다시 이런기관이 부흥된다함은질로도못김흔사업으로일반의기대는자못크다한다

＝長篇小說＝ 花冠【一】
李泰俊 作　金奎澤 畫

여름밤의꿈(一)

쏴! 하는 소리에 또 물인가보다 하고 정히(貞姬)는 얼른 차창박을 내여다본다。이번은 물이 아니다。싱그러운 풀내음번개가리 핵 끼엇고 다라나는아가시아의 놋음、그속에서나는 매아미들 소리요 쓰르래미들의 소리엿다。

『어쩌문 사뭇 물소리 가터?』

『그리게… 물소리만 못하지안케 시원하지? 아무턴 여름 여행은 경원선이 제일이야그중에도 여기서부터는…』

한참이나 잠지만 뒤척거리던 동옥(東玉)이도 다시 창틀에한편팔을 언즈며 지금 마악 세포(洗浦)를 지나는 광막한처녀지(處女地)그대로의 풀밧을 내여다본다。

비는 여기도 아침까지 나린듯하다。벌서 오정이 지난지오래는데도 어떤 풀포기에는 굵은 보석 가튼것이 번쩍이고잇다。그리고 비에 씻긴것은 따로이 엇것만 아닌듯、하늘에도 표백된 할사면 가튼 눈부신 구름송이가 어떤것은 꼿봉오리처럼 피엿스먹 어떤것은 산봉오리처럼 피여오르고 잇는것이다。

『애、저 구름! 꽤는 하야치?』

이번에는 동옥이가 그 구름빗만 못하지 안흔 이스속을보히며 감탄한다。

『참 꽤 히다。그러치만 구름은 바다에 뜬걸 봐야……파라라 못해 새까만 바다우에뜬걸 보면 너 여간 힐줄아니?』

『그래두 저것도 좀 히냐?저러케 힌 백합화가 이 푸른벌판에 한벌판 가득 폇다면……』

『넌 백합화가、조흐니?』

『그럼!넌?』

『난 백합화 너머 쌀쌀허 실터라 꼿은 벗부터 좀 이뻐야지뭐』

『힌빗은 이쁘지 안나?꼿이라도 백합은 이상(理想)이 잇서뵈지 안허? 향기선건…』

『호―라! 너두 인전…알엇다얘…』

하면서 정히는 갑작이 이쪽을향해 시울이 약간 부성부성한 눈을 실룩해 보힌다。

『뭔데? 뭘 알어?』

『너두 인전 내년이 졸업이라 벌서부터 힌 백합화 한아를 안구 딴― 딴 따따…할생각만 하는구나?』

『뭐 넌줄 아니? 제가 아주 지금 만나러 가는 길이니까 넌 참 지금 결혼식 생각비게 엇슬라』

하는데 차가 굴속으로 드러간다。두 처녀는 질겁을하며 창부터 닷고는 눈과 귀가 먹먹해저서 이야기는 끄치고말엇다。

너무 인전 래년이 졸업、동옥의 머리에는『최후의 여름방학』이란 생각이 또 한번 지나간다。동옥은 머리를 뒤로 기대고 고요히 눈을 감는다。

전문학교면 조선서는 여자의 최고학부일뿐 아니라 그 우에 더 잇더라도 집안형편이 허락지 안는다。이번이 여름방학으로 마지막인것은、벌서 시험을 치를때부터 여러 반동무들과 함께 탄식한바엿지만、그때는、다만、어떠케 놀아야 유감업시 보낼가 하는 단순한 욕망뿐이엿섯다。그래던것이 막상당하고 보니、어떠케 놀아야 할가 보다는 좀더 어려운 과제(課題)들이 여기 저기서 숨어잇섯던것처럼 몰려나왓다。

이번 방학만 지나면 졸업학년도 반이나 지나간다。여름방학으로 마지막이라기보다 학창생활로 마지막이 아닌가?이것을 감각하지 안흘수 업섯고、또 마지막인 이 반년의 학창생활이 획닥 꼿나고 마는 날이면 그때는 나는 무엇인가?하는、스사로 못는 말에 놀라지 안흘수 업섯던것이다。

아무개의 딸?

아무개의 누어?

임 동 옥?

이런것들은 다 의미가업는것이엿다。

녀자고등보통학교 영어교원의 자격자、

그리고는

결혼을 할수 잇는 혼령기(婚齡期)의 처녀、

이 두가지 자격과 운명에서 동옥은 새로운 자기의 발견을 느낀것이며 또 자기의 국한된 세계를 새삼스럽게 인식하지 안흘수 업섯다。

チドリ椿香油　チドリ椿ポマー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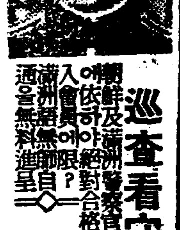
朝報案內

軍手 製造家募集잇지안는가 軍手製造는製法簡單 希望者照會하시면說明書無代進呈함 京城府西大門町一ノ八四 常盤商會京城支店

外務社員招聘 經驗有無不問하고務力奮鬪의士를求함二十五歲以上의有給外務社員을招聘、鮮內各地駐在可、希望者는履歷書보내면面會日通知함 京城府長谷川町一一二 第一生命保險相互會社 朝鮮支部長 白石一男 電話本局二三三四番

ウエスト(機械油試用) 御商 三英商會 京城府公平町六六 電話光一二三九番

男女有給社員招聘 經驗不問年齡二十五歲以上男女社員及(監督二名)招聘하오니希望者履歷書持參來談但午前中 京城府鐘路二丁目八二 日清生命保險株式會社 東鮮出張所 白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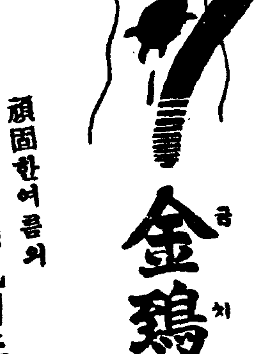
巡査看守(講義全書) 朝鮮及滿洲警察官志願者는本會受驗全書修了에依하야絶對合格(規則書郵券) 入會員에限? 滿洲語無料進呈 京城府林町八二番地 鮮滿警察學會

各社新譜 레코―드三十枚에壹圓! 極東洋行

朝鮮日報 京販 電本(2)一五九七番

尤先! 三十錢짜리를試用하시라

瘧疾(학질)과 鼈腹(자라배)은 金鷄丸(금계환)으로全快



頑固한여름의……感氣에도特効

定價 二十錢·三十錢·五十錢·一圓

本舖 樂天堂製藥株式會社 京城府

有到處藥店

生乳보다 安全하고消化잘된다!

여름은牛乳가腐敗하기쉬워서不安합니다 絶對로變質하지안코恒常新鮮無比한森永드라이밀크가安心됩니다 特殊히母乳와同成分으로써消化잘되는榮養은愛兒를토실토실健全히자라게합니다

販賣全需要의七割을占한

森永ドライミルク(도라이밀크)

森永製品朝鮮販賣株式會社

001523

あらゆる場合の消化障碍に
여러가지경우의소화장애에

タカヂアスターゼ
다가지아스타―제

三十有餘年의 貴重한 實驗과 臨牀經驗에 依하야 그効價가 承認되고잇는比類업는消化藥

特히唾液과膵液의 分泌減少及作用減□을 齎來하는 下記의경우에 適應하야 消化를도읍고 食慾을 增進하며 榮養을佳良케하는効果가 顯著함을알게되엿다

(1) 全唾液을 減少케하는것……高熱를 伴하는疾患의 初期及經過中、急性口內炎、潰瘍、萎縮腎、糖尿病並耳下腺炎의類

(2) 唾液酵素量을 減少케하는것……脚氣、糖尿病、바세도―氏病腎疾患、마라리아有熱時等等

(3) 膵液의도리푸싱及리파―제作用을 減少케하는것……糖尿病、脚氣、지부스、赤痢、猩紅熱等의發熱時、肺結核、膵囊並膵臟疾患의類

(4) 其他過飮過食時等의 消化不良防止等等……

本品10瓦은 健康人唾液의250―270瓩에相當한 澱粉消化作用이有하고(當社硏究室實驗)又膵液100瓩과 同樣인 蛋白消化作用을 有함(우올겜도氏)。그러므로如何히 本品이此等消化液分泌異狀에際하야 有效한作用을 하는가를 推知할수잇다

(說明書進呈) 粉末、錠劑各種

全國有名藥舖에서販賣함

SANKYO 三共

東京·室町 三共株式會社

北支事變과米價
既往戰時市勢回顧

過般米價의 暴騰에는 北支事態의突發로 戰時氣分이 横溢하게되어 既往의株低、米高라는觀念이 不期코 勢를한데基因한것이다 即東京清算先物은 中旬에 三十五圓六十錢이란高價를 示하야 昭和三年夏三十七圓台에 다음가는高價이엇고 清算뿐아니라 正米는 各地産地가 거의最高公定價格을突破하야 政府所有米에對한 公定價의 買受申込이 急增하얏는바 特히 日本內地米價를刺戟한것에는 朝鮮米價暴騰이잇다 朝鮮은 地理的으로보아 北支事變이 切實히 人氣를强하게 刺戟한것은 否定치못할事實로서 今後의米價도 또한 事實의推移와 朝鮮米情에도 重大關心을가지고잇다 그런데 北支事態는 緩和되갓든니 抗日熱과 支那國情으로해서다시 惡化途程을 밟게되엇다 따라서 이제事變 또는戰爭과米價關係에對하야 既往의 그것을回想하는것도 無用의일은아닐까한다(以下東京市勢)

▲日清戰爭=宣戰布告는 明治廿七年·七月下旬이엇는데 米는 當時에 一石十圓台로奔騰하엿다。이해는 前年의凶作의뒤를밧고 開戰前부터 日支國交不安에 刺戟되어 春期부터 軍需品需要와함께 漸騰步調를 밟고잇섯다 春期의七、八圓台로부터 十圓前後의 高價를 示한것이十一月의 新穀期까지 繼續되엇다 政府는 當時開戰中임에도 不拘하고 米價抑制를 爲하야 郵船會社船舶을 救援하야 하여금國內에米에 船舶케하야 供給圓滑을 圖하엿다 그런데이해는 마친豐作으로 平年作보다 四、五百萬石增收인四千八十五萬石의 豐作이엇스므로 新米出廻期인 十二月에는 一石八圓台로 反落하고 翌廿八年四月媾和成立까지 八圓台로 推移하고 그後는三圓千族과 天候關係로 波瀾期에 들어갓다

▲日露戰爭=明治 卅七年二月 日露開戰이되어 米價도十三圓台로 暴騰되엇다 이해는 前年의 豐作의뒤를 바덧스므로 需給樂觀으로 大戰에不拘코 米價도圓滑하엿다 그나마 이해도 前年에 繼續하야 植付以來 好順氣로 平年作四千二百萬石에對하야 五千四十餘萬石이란大豐作을 告하엿다 이때문에 大暴騰도업시 同年은 大體十三圓臺를往來하엿스므로 政府도 特別한對策은세우지안혓다 翌卅八年은九月에休戰이되엇스나 米價는米及正租의輸入稅新設(百斤六十四錢一厘)과 戰後放散에依한通貨膨脹豫想으로 大豐作이엇스나 春期부터 騰貴하야 特히東半期는 新米作況不良 北一帶의凶作人氣로 秋期에는十五圓臺에 暴騰하고 出廻期에 들어 겨우反落傾向을보엿다

▲歐洲大戰=이해는 五千七百萬石으로 平年作보다 七百萬石增이란 大豐年이엇스나 米價는 七月下旬의 歐洲大戰勃發、同十一月에는青島攻略이되고、政界에는所謂씨멘스事件으로山本內閣의 倒壞등이잇고 貿易은逆勢 正貨流出이甚하야 通貨收縮의 影響하고 金融梗塞等 米價에對하야 膨落材料로써 解禁할만한 動向이 차례로일어낫스나 朝鮮米移入과 新米豐作으로 年初十八圓臺의市勢는 漸落하야 秋期에는 十一、二圓臺로 反落되엇다 이때문에 議會에는 도리어 米價調節法案까지 提出되엇스나 議會는 解散이되엇다 翌四年은豐作의 뒤를바더 年初十六、七圓臺의 低價이엇스나 二月에들어 政府의 百萬石買上이 奏効하야 市勢는 同復되고 三月에는米穀法改正을 行하야 率勢米價에依하야 生産費以下의 低落을 防止하기로되고 米穀資金은 三億五千萬圓으로 增額하고 七月에는 最低價格을 十一圓으로 又復豐作이 잇스므로 秋期에는 十一圓臺로 暴落하야 農村救濟問題는 이때부터 시끄럽게되엇다

▲滿洲事變=이해의作況은 過去의戰爭年에反하야 不作으로 平年作보다 五百萬石減인 五千五百萬石의 收穫이엇다 이해는春來 歐洲에 財界恐慌이 起한해도 六月에는 米國이 一個年의 戰債世界『모라토리움』을 宣言할수밧게이되엇다。그러나世界의 經濟界는 依然深刻한不況이 繼續되엇다 九月에는滿洲事變이일어나 第二의世界戰爭에 導入될危機까지 釀成되게되엇다。米價는前年의豐作의 뒤를바더 年初十六、七圓臺의 低價이엇스나 入團廿八錢 最低價格廿七圓四十二錢으로 發表하야 東亞中외 十月에第二回의 百萬石買上을實施하엿스나 一方新米의作況이不良하엿스므로 市勢는六七月頃부터 廿四圓前後를往來하엿다 末에는 廿四圓臺로 暴騰하야 昭和七年에는 「何等大暴騰氣가不作의뒤를이어 米價는 廿七圓臺로暴騰하고 이로부터 또反動으로들어갓다

物價로본米價

日銀調査의 物價指數로본物價와 米價의比較는如左하다

	物價指數	米價指數	米價率
▲十一年度			
十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二年度			
十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右表에依하야보면 他物價에比하야 米價騰貴가 首肯되는데 現行公定米價作成은 昨年十一月 物價指數를 基礎로한것으로서 統制法에依하야 今年은 公定價改定條件을 具備하고잇合에不拘코 政府는 이것을實行치안는터이나 이物價高가 來年度 即十二年度産米의 公定價格上에 나타날것인즉 이點으로도 米價大勢는 비록豐作일지라도 大低價는 豫想키어려웁다한다

物價世界的反撥
大勢騰貴難免
物資需要去益增大

昨秋부터騰勢가 猛烈하던 世界的高物價는 그反動과『뿔』抑制가 實際問題로서 論議케되고 또一部實行에 移하얏기때문에 大體四月을天井으로하고 反落過程에入하얏섯스나

1、世界經濟界가 大反動에 襲될理由가업고 또財界의 反動을招來할과가튼政策을 取할것이아니고 僅少의金利引上、政府의 消費節約等微温的抑制工作이採用됨에不過한것

2、基本的으로는 各般의購買力이 顯著히 增大되는것

3、特히軍擴으로 政府需要가激增되는것

等에依하야 物價反撥이 當然觀되더니 果然六月上中旬을 底로서各國의物價는 好轉을 呈하얏다 이제英國『로이타ー』及米國『무데』物價指數를 示하면

	로이타ー	무데
四月十日	一九二、二	二二七、三
五月八日	一八五、六	二〇八、二
十四日	一八一、〇	二〇五、一
六月八日	一七六、四	二一〇、〇
十四日	一七三、六	一九八、二
二十一日	一七四、九	二〇〇、四
七月八日	一八一、九	二〇九、四
十四日	一八三、七	二〇八、四
二十一日	一八〇、六	二〇七、七

即六月十四日을底로 英米가모두 反撥되엇다。

本自體로서는 根本的으로 生産力이 不足할뿐아니라 國際情勢의 緊迫化와 共히物價需要가增大되고 季節的으로도 需要期가 接近하야 物價騰貴는 避키難한 實情이라한다

日本에잇서서는 北支事變을契機로하야 이미食料品、金屬品과가튼것은 騰貴를示키에 至하얏다 一般的으로보아 勿論이以上急激한騰貴는 업다드래도 特別한事情이업는限 反落等은 考慮할수업는바 이제 最近物價를보면(日銀調査)

	卸賣	小賣
十一年六月	一九三、六	一九七、八
七月	一九七、四	一五七、六
八月	二〇〇、七	一五九、一
九月	二〇一、〇	一五九、九
十月	二〇〇、四	一五八、七
十一月	二〇三、五	一五八、九
十二月	二一四、九	一六二、五
十二年一月	二三三、三	一六九、八
二月	二三〇、四	一七〇、七
三月	二三九、八	一七一、〇
四月	二四八、〇	一七一、九
五月	二四一、〇	一七一、九
六月	二三八、三	一七一、四

即六月의 卸賣物價指數는 二三八、三으로 四月高價에서 三分九厘의 低落이나 昨年六月에比하면 實로二割三分의 漲騰이다 이는 世界的으로 物資不足으로서 大局的騰勢인데다가 日

在朝鮮華商
金融狀態不變

北支事變을 轉機로하야 朝鮮에 嚴然한 勢力을가진 支那商人의 金融狀況에 就하야서도 關係方面으로부터 多大히 注目되는데 右에 就하야 山地總督府 理財課長은 如左히 말하얏다

支那商人에게對한 全朝鮮的金融狀況은 일즉 調査치안엇스나 京城을 中心으로보면 支那商人의 市中銀行預金은 大體十五萬圓 貸出은六十五萬圓이오 事變發生後二日間은 急激한 預金引出이잇섯스나 日本의 誠意가判明됨에從하야 漸次回復되고 現在는 舊態로回復되엇다 貸出方面으로는 棉絲布關係支那商人에게對하야 鮮銀에서 手形割引信用貸를停止하얏스나 이는事業關係라기보다 綿絲布의下落에依한 阪神問屋과 支那商人의 先物關係誘因이엇다 目下支那人에게對한 金融은 事變前에比하야 顯著한變化가업다

京電一割配可決

京城電氣에서는 廿七日午前十時부터 東京工業倶樂部에서 第五十八期定期總會를開催하고 左記利益金處分案(一割配當据置)을 附議可決하얏다(單位圓)

▲當期純利益 一、四〇九、四七四 ▲前期繰越利益 四一九、二七五 ▲法定積立金 三三〇、〇〇〇 ▲別途積立金 二二〇、〇〇〇 ▲役員賞與金 六〇、〇〇〇 ▲配當金(年一割)七一三、三三〇 ▲後期繰越金 四五五、四二六

米京濱移出激增
船運賃引上?

米運賃은 八月一日부터 引上

最近西朝鮮積京濱向朝鮮米及安東積京濱拂滿洲特産(豆粕)이 激增되어 各港出帆의 船舶도 滿船狀態를 示現코잇는바 如左한理由에依한것이라한다

一、八月一日부터의 朝鮮內運賃引上을 앞두고 米穀商의豫想移出이旺盛한것

二、船腹의 特殊需要에 依하야 船腹不足이甚한것

三、米價低騰關係及京濱市場의需要旺盛으로 移出增인것

그러나 阪神向은 別입업다한다

經濟界消息

○貯銀大邱支店 九月一日開業=貯銀大邱支店은 過般定時總會議決에 依하야 開業키로 決定하야 九月一日에 開業準備中인데 現在大邱에는 貯銀預金百五十萬圓이잇서 一兩年中에는 三百萬圓으로할計劃이라고

○電氣協會總會=朝鮮電氣協會에서는 二十九日午後三時부터 遞信會館에서 第二十四回 定期總會를 開催하고 議事後 左記講演이잇고 午後六時半부터 官民多數를 招請하야 懇親會를 開하리라고

▲題未定 朝鮮軍參謀 井原中佐 ▲朝鮮의雷雨에就하야 總督府觀測所長 國富信一

◇簡保事業諮問委員會=遞信局에서는 簡保資金의 融通申込額이 相當額에 達함으로 來三十日午前十時부터 總督府 第一會議室에서 第十七回 朝鮮簡易保險事業諮問委員會를 開催하고 昭和十二年度 資金融通配定額을 內定하리라고

政府所有米로
軍用米供結
市場의投機는解消

【東京】陸海軍經理部에서는 從來軍用米를 市場으로부터 買入하얏섯스나 今後는軍用米는 될수잇는대로 政府所有米로써 供給키로 決定하얏다。從하야 近來市場에 나타난投機는 이에依하야 解消될것인데 現在政府所有米는 四百六十六萬石으로 滿洲事變當時에도 政府米를 供給한일이잇섯다 그리고 公定價格에 依한拂下는 支障이업스리라한다

商銀、漢銀、東一
營銀活動活潑

近年의 地元營銀界는 商銀의 躍進에對하야 漢銀은 消極、東一은 問題續出이어서 特殊關係의 摩擦、日本內地銀行의 進出이 顯著한 狀勢이엇스나 最近 漢銀、東一의 陣容一新은 局面에 質的變化를 與하야 營銀三行間의 今後業務는 活潑한活動에 入하리라고 豫想된다한다

即 漢銀은 林頭取를 迎하야 新方針에依한 積極經營을 具體化하는中이오 一方東一도 更生의 新陣容을 整備하고 從前의 地盤인 朝鮮人方面의 積極的吸收와共히 日本內地人方面에도 손을대일方針으로서 이와 相對한 商銀도 計畫을 超越하는業績好調에 乘機하야 活躍을 繼續하고잇서서 營銀界의 今後는 注目된다한다

東銀幹部行員
異動發表
職制도改正發表

東一銀行에서는 二十七日總會에서 正式決定된 東一銀行重役이 二十八日午前十一時 同行會長室에서 重役會를열고 會長、河口專務、三谷常務、金監査役이 參集하야 職制、人事問題를協議決定하고 各本人에게 辭令을交付한後 如左히發表하얏다

▲職制

▲庶務課(秘書係、庶務係、用途係、鑑定係)

▲業務課(業務係、司計係、整理係)

처음 整理案發表에는 秘書課를 置할것가티 傳하엿스나 獨立한課로하지안코 庶務課內에 秘書係를 두기로되엇다

▲人事

庶務課長이될 栗原前鮮銀頭取課長은 後任者에게 對한 事務引繼其他事情으로 二十八日付發令에는 들지안코 來月初에나正式就任케 될터이며 庶務課長金敎哲氏의 寬勳洞支店支配人轉出은 同支店責任者를 重視한處事라 하겟스며 檢査役李正求氏의 西大門支店支配人決定等은 市內支店擴充의 意味로 解釋되는바 即 如左히 發令되엇다 그리고地方支店支配人級異動은아직考慮가업다고 三谷常務가말하얏다

常務取締役 三谷俊博
業務課長兼務를命함
檢査課長兼檢査役을命함 古賀菊次郎
本店支配人을命함 望月明吉
本店出納係主任을命함 李根培
秘書役을命함 李載侃
檢査役 李正求
西大門支店支配人을命함
庶務課長 金敎哲
寬勳洞支店支配人을命함
本店副支配人 李正燮
業務課業務係主任兼整理係主任을命함
西大門支店支配人代理 閔憲植
寬勳洞支店支配人代理를命함
本店支配人代理 李宅洙
業務課司計主任을命함
檢査課職員 鄭栖永
業務課勤務를命함

鮮銀辭令

朝銀에서는 二十八日附로서 東一銀行入行者辭任에 伴한 辭令을 如左히 發表하얏다

京城總裁席 古賀菊次郎
同 望月明吉
本店 李根培
支店課 李載侃
依願解職(各通二十八日附)

貯銀異動

貯蓄銀行에서는 二十七日附로 如左히發令하얏다

命監理課長代理 加藤武男
命調査係(各通) 木村謙彦 秋浦清治

株式
賣人氣나 底强

今日의市勢(廿八日)

前場軟調 北支事態의 漸次惡化로 警戒氣分이 濃厚한 次 昨後場에 이어 今前場寄付도 鐘新二七、二六、東新一四、五六으로 軟調裡에 始場하고 이어서 東新은 一百四十四圓五十錢까지 賣叩되고 鐘新도 二百六十圓까지 人氣는 底强하야 低價만보이면 反高를 보이는 光景인데 特히 東阪에比하야 當地는 逆日步를 呈하고 너무도 過한 上輔를보여 더욱 堅强하엿다 東新은 一四五、九로 反高、鐘新二七〇、七의 軟狀으로 前場을 마치엇다

後場堅保 後場은 鐘新三圓二高、東新七高로 堅强히 寄付한後 堅保裡에 推移되다가 東新一四六二 鐘新二七二九에 止場하다

市勢底意頑强

北支事態의 險惡化로 警戒人氣强하야 少戾後에는 反落하고 또少戾를보이고는 反落하는 勢를 보이고 잇스나 纖維株를 보면 紡績、人絹株等은特히 軟하며 그中에서도 在華紡은 不勢이나 軍需株等은 昂騰은못하나 低落은되지안흘뿐外라 至極底堅한 推移를 보이고잇으며 主力株도 賣叩되면 急返하고

國債
買氣皆無 少弛

【東京電】北支情勢의 再惡化로 金融市場의 透視가 又復困難하야 買氣는 殆無로 小口의 賣物이 散見되며 內地債는 모다 五錢小甘이오 外貨債는 佛貨五錢低 米貨五分半만 西側의 處分關係로 一圓高를 示하엿다 ▲甲五分利 一〇一六〇 ▲佛貨 一九六〇

雜株는保勢

北支事態는 意外로 漸次緊迫狀態이나 人氣는 오히려 皋首觀望裡에 積極行動을避하야 市價는 不動의保勢를보이고잇다 아르미가 昨日高의反動으로 二圓低인九〇、〇 同新一圓五低인五六、〇으로 日鑛이 一圓低 日本新新이 一圓低를보엿스나 其他는大槪不變이엇다

期米
急返後에 揉合

前場急返 今朝陰鬱으로 阪地先限二十三圓九十五錢인 三十四丁突高를 報하고 當은二圓十五錢인 昨止同樣이엇스나 中은二圓六十二錢인 十三丁高로 先限은 三十一圓八十九錢인 十九丁高로 場을始한後 阪地二節八十九錢으로 反하야 九十三錢까지 跳返하더니 阪地八節八十六錢으로 反落함에따라 八節七十九錢으로 結局 阪比九十一錢을보고 九十錢에 止場하다

後場揉合 後場은 三十二圓〇二錢인 十二丁高로 始場한後 二節〇一錢으로 三節二圓丁後 三節九十五錢에 反弛하야 揉合商狀이엇다

今朝突然旋風

昨後場은 北支事變의 幾分緩和의 希望이잇섯고 又는日本內地의 晴天으로 樂觀賣物이 續出하야 急轉直下의 形勢를보이더니 今朝에 入하야는 阪地市場이 旋風化하야 各地市場이 모다突然에 至하엿다 要하면今朝近畿以西의 天候가 陰雲하야 降雨又는雷雨가잇서 土用後의 念慮도업지 안커니와 問題의北支時局은二十九軍長宋哲元의 辭職으로 그責任을 回避함을보아서 그解決이 自然擴延되는同時에 또어떠한事態를 일으킬지모르는 狀態이므로

市場六感

株……人氣는 不安한것가트면서도 意外로 市勢는底强▲이것이 大衆의買慕로 因한것인지 또는仕手의 買態度로보아 할인가? ▲東阪의 取組로보아서 大衆은 오히려賣에 加擔하고잇는듯지▲時局을 판다는 것도 恐怖人氣가 支配를一時에 不過한것이오 언제까지나 잇는것은 아닐듯▲勿論 今後의 推移는 甚大한注意가 必要하나 好機에接하야 反撥은 쉬울지언정 大暴落은 疑問일듯……(金剛城)

米……昨後場의崩落은强派의 落膽市勢이엇스나 今朝의突高는軟派의狼狽▲要하면 昨後場의反落은 北支時局의적이緩和된것을 豫想케하엿스나 今朝의 反撥은 宋哲元의辭職으로 다시 險惡化를豫想케하는光景▲北支의事變에伴한市勢는 또한波瀾萬丈인 것▲何如間時局의 收拾만은相當한時日을 要할모양이니 安心賣만은 할수업슬듯▲앞으로 圓上天候는 如何할모양인고? 萬一天候까지 不順하다하면大勢의 又復一高는 難免일걸(鷲山)

土用期의天候

土用期에入한以來의 日本內地天候는 大體好順으로 樂觀을呈하여왓스나 一昨日의 颱風襲來로 九州四國地方及 鹿兒島의 被害가업지안헛고 今朝仁川觀測所의 發表에 依하면 天氣는 陰鬱하야 降雨又는 雷雨가잇서 近畿地方以西는 一般的으로 天氣不良한모양으로 約一週間을 繼續하리라는 土用天候가 果然如何히 經過될지 注目되는터인데 天氣槪況은 左記와如하다

高氣壓은『오호츠크』海로 本邦東方洋上에 擴張하여잇스며 支那로부터 朝鮮北部 日本海는 氣壓의谷이되어잇고 北朝鮮沖及黃河下流에는 低氣壓이잇서 兩者가連結하고 不連線을 形成하여 黃海北部及 朝鮮北部를 掠하여잇다 天氣는北支滿洲는晴 朝鮮은西部는晴、中部以北은時雨、京城과雄基는雨、釜山多島海方面에는 濃霧가發生、日本內地는近畿以西는 一般的으로 曇天이어서 處處에降雨又는雷雨、南西諸島는 어데할것업시降雨中이며 東日本은晴이나 北朝鮮沖의低氣壓은 豫想은 氣壓配置가不變으로 큰變化가업다

今日財界 廿九日

◆米 仁川期米先限 大阪期米先限 京城一等白米一石 正租(仁川)一等 一斤 仁川三等 白米

◆株 朝新 東新 鐘新 砂糖 人絹 綿花

正米 觀望裡에 區區

京城不變 今日定期의 反撥을보나 正米는 不得暗이어 依然 取引은 小口賣買뿐이다 三等 三二、四〇 四等三二、一〇 一等白米 三二四、五〇

仁川不變 順氣續報로 人氣는 軟化한 市勢는 北支의 再惡化로 幾分回復模樣이나 아직 極度로 利材料로 商狀이 여전히 이라고보는지 亦不關散한 商狀이다 ◎穀良三等 三三、四〇 四等三二、一〇 ◎銀坊主三等 三三、二〇 多摩三等 三三、〇〇

釜山反高 今朝定期의 齊騰勢로 人氣强하야精米圓도 多少나마 買氣를보여 市價는 無材料이나 昨二十錢低이나 今日은 二十錢高로 反戾되엇다 ◎穀良三等 三三、六〇 四等三三、四〇 一等白米三三、九二

大邱閑散 持米側의 賣氣가 多少엿보이나 買氣가 不振하야 商狀은 依然閑散하다 ◎穀良三等 三三、七〇 四等三三、九〇 一等白米一三、六五

群山軟化 正米事情은 日本大差업스나 今朝定期의 不透明으로 賣方이 消極的이어서 市場은 極度의 閑散을 繼續하얏다 ◎銀坊主三等 三三、二〇 四等三三、〇〇 一等白米 一四、一〇

木浦强調 依然商談은 杜絕同樣의 閑散市場이나 品薄도잇서 期米의 堅調로 氣配는 十錢高를 唱하엿고 ◎銀坊主三等 三三、七〇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當限 中限 先限 ◆買方 [illegible]

海外經濟 二七日

銀行券 二七日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illegible]

手形交換·金利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illegible]

鰯油粕·麥粉

◆阪神鰯粕 ◆阪神鰯油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金銀價

◆大阪金利 ◆京城市中金銀價 ◆東京金銀價 [illegible]

對外爲替

◆金買入價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正租

雜穀

◆京城雜穀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紡績製品 ◆京城綿絲布市勢 ◆大連特産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株式

◆朝取短期 ◆朝取短期賣買高 ◆東京短期 ◆東京短期取組 ◆東京現株 ◆短期主要取組高 ◆算定代引日步 ◆大阪短期 ◆大阪長期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十合石谷證券 分析 賣買 大邱府京町一丁目 慶北産金社

期米

◆朝取期米 ◆大邱期米 ◆朝取期米賣買高 ◆群山期米 ◆釜山期米 ◆東京期米 ◆大阪期米 ◆木浦期米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期米 康益夏 仁川

仁川期米 紺谷取引店 案內進呈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電話 六一九 五二一

期米 福 仁川本町 吉村榮左工門商店

京城物價 (廿八日)

▲白米(叺、單位圓) ▲參粉(三十叺、單位錢) ▲肥料 ▲紙物(單位圓) 硫安 過燐酸石灰 豆粕 ▲綿絲布 ▲燃料(瓲、單位錢) 撫順塊炭 京城煉炭 [illegible]

▲洋灰(五〇瓩袋、單位錢) ▲砂糖(百斤、單位錢) ▲鹽物(單位錢) ▲海産物(單位錢) 明太 ▲鷄卵 [illegible]

▲木材(才、單位錢) ▲人絹(疋、單位錢) ▲毛絲 ▲牛皮 [illegible]

綿絲 ◆大阪綿絲

棉花 ◆大阪棉花

人絹 ◆各地人絹

生絲 ◆橫濱生絲

砂糖 ◆大阪砂糖 ◆東京砂糖 [illegible]